

통신서비스업

AI 시대에 통신의 먹거리
(MWC 2026 참관기)

- MWC 2026: The IQ Era(지능의 시대). AI와 연결성이 결합한 지능형 혁신
- 통신의 과제는 N/W 고도화, 지능화를 통한 생태계 지원 및 BM 발굴
- AI 진화 기준으로는 Agentic AI, Layer 기준으로는 DC와 미들웨어 및 B2C

MWC 2026. 지능의 시대를 맞이하는 통신의 역할

인프라의 지능(Infrastructure Intelligence)과 휴먼 인사이트(Human Insight)의 결합. 5G 및 30년에 도입될 6G를 기반으로 AI가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도래

AI 시대에 통신의 먹거리는 무엇인가? Agentic AI, Physical AI, N/W 효율화

AI 시대에 통신의 역할은 유무선 N/W과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지원 역할로 시작. 5G 상용화 7년차를 맞이하여 통신은 AI 관련 BM 발굴에 집중

AI 산업은 진화단계 기준으로 인지 AI 및 생성형 AI를 지나 Agentic AI와 Physical AI 영역으로 진입

통신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 자체 LLM 구축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Sovereign AI를 대비하기 위한 용도이고, BM 관점에서는 Agentic 이후 단계 공략. AI 산업은 Layer 관점에서 보면, 가장 근간이 되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들웨어/플랫폼 및 최종 결과물인 서비스로 구성

통신은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인프라 영역의 DC를 캐쉬카우로, 서비스 영역에서 B2C에 해당하는 Agentic AI를 BM으로 공략. Physical AI의 경우는 직접적인 BM화 보다는 N/W 관점에서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BM이 발굴되도록 기여

직간접적인 BM 발굴을 위해 기존 N/W를 효율화하는 AI-RAN, Edge 및 5G-SA, 5G-Advanced 도입을 추진 중이고, 6G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연구 시작

한국 통신사들의 AI 준비 상황

26년 중 5G-SA 상용화 및 5G-Advanced 준비. 30년 상용화 예정인 6G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

SKT. AI 산업의 발전 단계 기준 AI 에이전트에 집중. 한편,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생성형 AI의 Sovereign(주권)화도 병행

AI의 Layer 기준으로는 울산 AIDC 등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고, 에이닷의 고도화를 통해 AI 에이전트 시장도 공략

KT. AI의 Layer 기준으로 AIDC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MS, Palantir 등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하여 미들웨어 Layer에서는 자체 시스템 효율화 및 B2B 시장 공략 중. 가장 상단의 서비스 영역에서는 Agentic AICC 서비스 출시

LGU+. AI 산업의 발전 단계 기준 생성형 AI와 에이전트 AI 영역에 해당하는 ixi

AI의 Layer 기준으로는 파주 AIDC 등 인프라 강화. 가장 상단의 서비스 영역에서는 ixi 기반의 ixi-O(익시오) 등 B2C 서비스 출시

김화재

hojae.kim@daishin.com

투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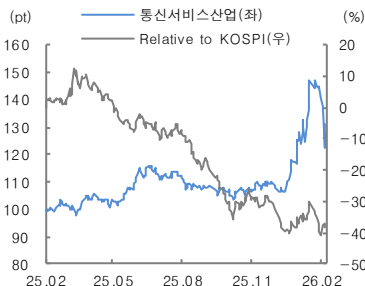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 의견	목표주가
KT	Buy	74,000원
SK텔레콤	Buy	97,000원
LG유플러스	Buy	20,000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7	19.4	20.2	31.6
상대수익률	-6.9	-12.3	-31.0	-39.7



Contents

I	MWC 2026: 지능의 시대	4
II	가시화된 BM. Agentic AI, On Device / On Telco AI	8
III	가시화된 BM. Physical AI	16
IV	N/W에 접목된 AI	25
V	K-Telco의 AI BM	33

I . MWC 2026. 지능의 시대

지능의 시대를 맞이하는 통신의 역할

The IQ Era

MWC(Mobile World Congress)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 GSMCA)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산업 전시회로, 초기에는 통신사들의 통신기술 전시 위주였으나, 2010년도 중반부터는 주요 제조사와 IT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신기반의 IT전시회로 확장

MWC 2026은 “All themes lead to The IQ Era(지능의 시대)”라는 주제 하에, 향후 AI와 연결성(Connectivity)이 서로 결합한 지능형 혁신에 초점

New for 2026: In a data-saturated world, it’s more important than ever for deep thinking, critical analysis and clarity of purpose to direct our actions. Our six themes are in sync with the emergent questions of 2026 and the long reach of the **IQ Era: Intelligent Infrastructure**, Connect AI, AI 4 Enterprise, AI Nexus, Tech4All, and Game Changers

주요 6개 테마

Intelligent Infrastructure. 차세대 네트워크, AI 기반 자동화,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 개방형 아키텍처가 연결성을 전략적 가치 플랫폼으로 변화. 5G-Advanced, 사설 네트워크, 위성, NTN, 양자 컴퓨팅 지원 데이터 센터 등 AI 기반 자동화가 어떻게 효율성, 확장성, 복원력을 향상시키는지 시연. 새로운 산업 역량 창출, 국가 주권 보호,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가속화, 저탄소 지속 가능한 미래의 토대 마련

Connect AI. 네트워크에 지능 부여. AI와 머신러닝이 어떻게 계획, 슬라이싱, 운영을 자동화하고 통신사들이 데이터와 API를 AI 생태계에 어떻게 제공하는지 시연. 초저지연(ultra-low latency)과 엣지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분산형 엣지 AI 및 AI 기반 디바이스 등장. Connect AI는 새로운 차원의 AI 기반 서비스 및 에이전트형 AI 등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고객의 평생 가치를 높이며, AI 네이티브 통신 사업자로의 전환을 주도

AI 4 Enterprise. 생산성 향상, 위험 감소, 성장 가속화를 위한 실용적이고 업종별 맞춤형 인텔리전스 소개. 공장의 예측 유지보수, 핀테크의 실시간 사기 방지, 물류의 디지털 트윈,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에이전트형 AI 시연

AI Nexus. 생성형, 멀티모달, 양자 강화 AI의 빠른 융합시대 도래. 기업, 정책 입안자, 창작자들에게는 기회이면서 책임도 증가. 초개인화된 경험, 자율 의사 결정 시스템, 책임 있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Sovereign AI Stack의 등장. 혁신, 윤리, 인간 협력의 균형을 이루는 표준 제정의 필요성 증가

Tech4All. 탄력적인 국가 디지털 인프라, 개방형 플랫폼, 기후 기술, 디지털 문해력, 개발도상국을 위한 재정 모델 등 포용적인 혁신 탐구. 기술 주권, 데이터 권리,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세상의 경제, 사회적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 논의

Game Changers. 향후 10년을 정의할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시작점. 우주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시장, 자율 시스템, 차세대 인터페이스, 혁신적인 소재 과학 등

MWC 2026 주요 Agenda

Intelligent Infrastructure

1) 6G, Cloud, Edge, AI: The New Power Stack for Industrial Leadership

AI,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Non-Terrestrial Networks가 6G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논의. 핵심 기술의 융합이 실제 실행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 실험·테스트베드·파일럿 사례에 기반한 산업 인사이트 공유. 나아가, 차세대 AI Native Networks가 제조·물류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구조 및 새로운 수익화 방안에 대해 예측

AI Nexus

2) Agentic AI Summit

Agentic AI가 통신 네트워크 및 End-User Services에 가져올 수 있는 혁신에 대한 논의. 5G-A 인프라의 성숙을 전제로, 완전 자율화된 네트워크의 작동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외부 AI Agent 적용을 통한 새로운 B2B, B2C 사업기회 모색

Intelligent Infrastructure

3) Keynote 1: Leading the Future: Intelligent, Inclusive, Unstoppable

5G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는 동시에 차세대 기술 기반의 마련 방안 논의. AI Native Networks와 차세대 인프라에 기반한 Hyper-Connected 시대에 통신이 나아갈 방향 제시

Connect AI

4) Break the Walls: The Convergence of AI, Devices & Connectivity

AI/디바이스/Connectivity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Always-On 생태계와 실생활의 구조적 재편에 대해 논의. 멀티 에이전트 AI와 의도 기반 인터페이스에서 컴퓨팅/엣지/네트워크의 오케스트레이션까지, 직관적으로 다가올 차세대 기술에 대해 예측

Intelligent Infrastructure

5) Networks on Autopilot: When AI Takes the Wheel

AI-Driven 자동화와 AI-RAN 도입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분석, 자가 최적화, 자가 복구 기능을 구현하는 구조 및 네트워크 안정성과 Ultra Reliable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 AI-Driven 자동화의 수익화 방안 및 AI-RAN 도입의 사례를 공유하여 차세대 지능형 네트워크 배포의 가이드라인 제시

Connect AI

6) Keynote 2: Transforming Tomorrow's Connected World

코어 네트워크에서 클라우드 플랫폼, 우주까지 확장되는 새로운 Connectivity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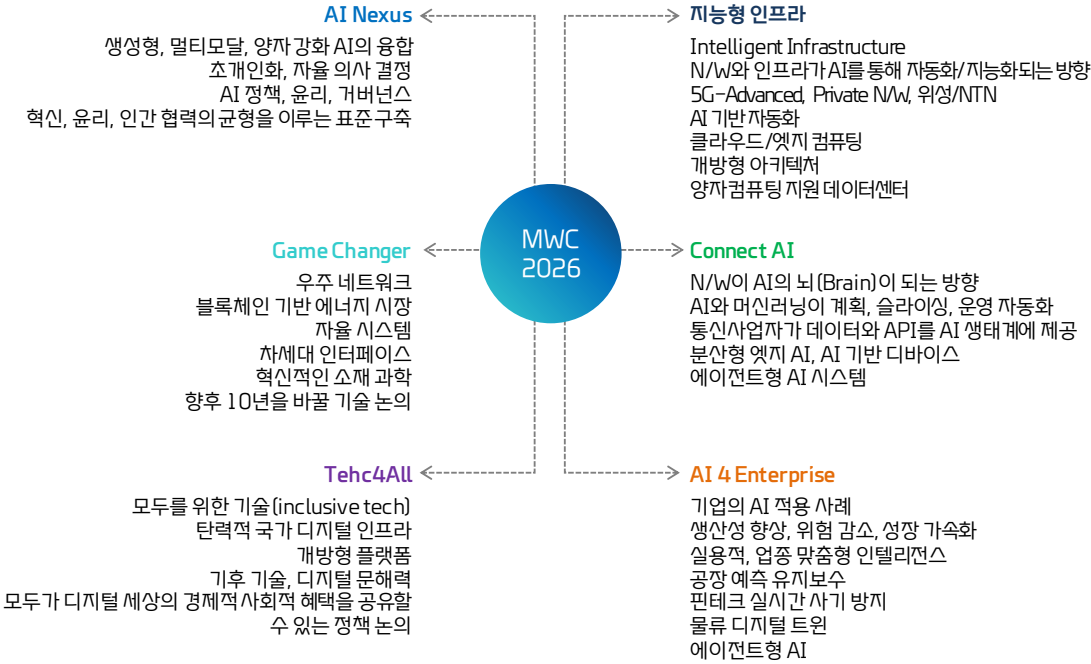
AI Nexus

7) AI-Powered. Future-Ready

AI, 에이전틱 시스템, 소버린 AI 전략 등 최첨단 기술이 통신 산업 및 고객 경험을 재정의하는 과정에 대해 논의. 초연결·초지능 사회에서 AI의 최대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회복탄력적이고 신뢰받는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 공유

Infinite AI	8) When AI Becomes Agentic: The Next Evolution of Telco Intelligence 에이전틱 AI가 통신사의 사업·의사결정·혁신 및 통신 산업의 미래를 직접적으로 재정의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 에이전틱 AI로의 전환이 통신산업에 미칠 영향과, 이러한 전환이 지난 수 십년간의 혁신 중 가장 중요한 도약이 되는 근거에 대해 토론
Connect AI	9) Telco for AI: The Value Equation 통신사의 역할이 단순 연결에서 지능형 시스템의 설계자로 진화함에 따라, AI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및 새로운 수익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
Intelligent Infrastructure	10) AI at the Gateway: Where Networks Learn to Earn AI, 오픈 API, 엣지 컴퓨팅의 결합을 통한 Learn to Earn 구조에 대해 논의. 지능형 네트워크와 오픈 API가 B2B 및 통신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는 방식에 대한 인사이트 공유
Connect AI	11) Edge of Intelligence: AI, IoT, and 5G Converge AI, IoT, 5G의 융합에 기반한 MEC, URLLC 등의 신기술을 스마트 팩토리·물류·원격의료와 같은 산업의 물리적 영역에 구현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
AI 4 Enterprise	12) Zero Latency, Infinite Possibility: The Power of Edge AI 데이터 처리가 데이터센터에서 엣지 AI로 이동, 엣지 AI의 초저지연 지능에 대해 논의. 통신사의 엣지 AI 사용방식 및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엣지 AI 기반 혁신 분석
Connect AI	13) Is AI-as-a-Service the Next Growth Frontier? 통신사가 AI Powerhouse로 진화함에 따라, 지능형 네트워크 최적화·GPUaaS·AI기반 플랫폼 등을 활용한 AI 수익화 및 AlaaS 로드맵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
Connect AI	14) From Telco LLMs to Domain AI: Building the Brains of Specialised Intelligence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산업·지역별 특화 AI모델에 대한 전략 수립 및 혁신과, 이러한 전환 속에서 진화하고 있는 통신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
Intelligent Infrastructure	15) Networks 2030: AI and the 6G Horizon AI 기반 6G 아키텍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 AI 시대를 대비하여 네트워크 기획 및 구축에 관한 인사이트 공유
Connect AI	16) CX-Factor: Can AI Truly Win the Customer's Heart? 통신에서 AI 기반 솔루션이 고객 지원·참여를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 실제 사례 제시. AI를 활용해 향상된 고객 경험과 사업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인사이트 공유

그림 1. MWC 2026 Agenda



자료: MWC 2026,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현장 스케치

Agentic AI
Physical AI
On device AI

MWC 2026의 8개 전시관 중 SKT, KT, LGU+, 삼성전자, Google, MS, NTT, Telefonica, Deutsche Telekom, 샤오미, Honor, Lenovo, Unitree, China Mobile 등 글로벌 통신사들과 주요 제조사들이 자리잡은 3~4번홀에서 많은 미래 신사업의 프로토타입들이 공개

통신사들은 AI를 N/W에 접목시키는 방법과 Agentic AI 및 Physical AI 등 서비스 영역에 집중. 제조사들은 디바이스에 AI를 내재화시킨 기술과 XR 기기 등을 공개

Agentic AI는 음성 인식 기능이 상당히 개선되어, 단순히 통화 녹음과 통역 및 노트 정리 수준에서 벗어나서, 실제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만능 비서라기 보다는 특정 영역의 지원에 특화되어있는 Vertical 개념으로 BM이 준비되고 있어서,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JARVIS(Just A Rather Very Intelligent System, 자비스)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 특이사항은 별도 어플리케이션이 없이 디바이스에 내재화 되는 서비스들이 많아지고 있고, 자체 LLM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등장하면서 Sovereign AI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 1) SKT 에이닷. 자체 LLM인 A.X와 Anthropic의 Claude 등 멀티 LLM 전략. 별도 앱
- 2) DT. T Phone에 내재된 Magenta AI. Perplexity를 기본으로 활용
- 3) NTT Docomo. AI Agent Sync Me 공개. 26.3월 무료서비스로 출시
- 4) China Mobile. Agentic AI + New Calling. 별도 어플리케이션이 없이 CM 전용 폰에 내재. 자체 LLM인 Jiutian 모델 적용
- 5) 갤럭시S26. 자체 모델과 Google Gemini 등 멀티 LLM 전략. 온디바이스 AI 전략

Physical AI는 Honor, Unitree의 Humanoid 뿐만 아니라, 가정용 돌봄, 방범용, 엔터테인먼트용 등 특정 영역에 활용되는 로봇들도 다양하게 등장

II. 가시화된 BM. Agentic AI, On Device / Telco AI

나의 완벽한 비서는 없다. 특정 영역에 특화된 Vertical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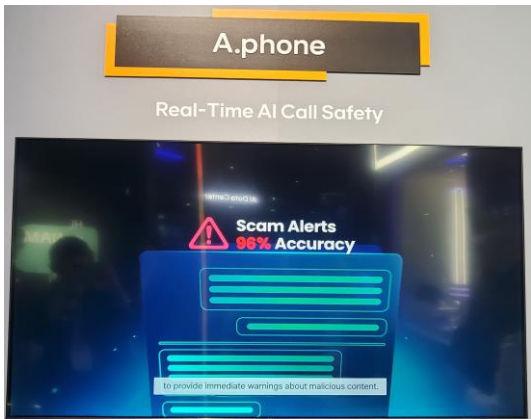
On Device / Telco
Vertical

AI를 5단계의 발전단계로 정의하면, 현시점은 3단계인 Generative AI(생성형)를 지나서 Agentic AI(비서)와 Physical AI를 준비하는 단계. AI 산업을 Layer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가장 근간이 되는 인프라와, 그 위의 미들웨어 그리고 서비스로 구성. Agentic AI와 Physical AI는 가장 윗 단계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영역

Agentic AI는 통신사들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영역. 통신은 고객 접점이 많은 산업이다보니, 우선 B2C 서비스로 준비하고 있는 Agentic AI는 통신사들의 DNA와도 일치

이번 MWC 2026에서 선보인 Agentic AI의 특징은, On Device, On Telco, Vertical. 다양한 서비스들이 사전에 스마트폰에 탑재되거나, 과거 SKT의 T전화 처럼 통신사에 내재되는 형태로 등장. 또한,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비서의 개념보다는, 특정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비서 역할을 해주는 Vertical 영역으로 진화 중

그림 2. SKT. A.Phone. 에이닷은 만능 비서 지향



자료: MWC 2026, S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SKT. A.Note. 에이닷은 만능 비서 지향



자료: MWC 2026, S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gentic AI. Device 에 내재화된 비서

갤럭시S26
강화된 AI

26.2월 공개된 갤럭시S26의 AI 기능은 더욱 강화. Galaxy AI는 통화, 메모, 통역/번역, 사진, 창작, 음성 등 생활 속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들을 디바이스에 내재.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인 많은 AI 비서들의 특징이, 별도의 앱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지 않고, 디바이스에 또는 통신서비스에 내재화해 적용하고 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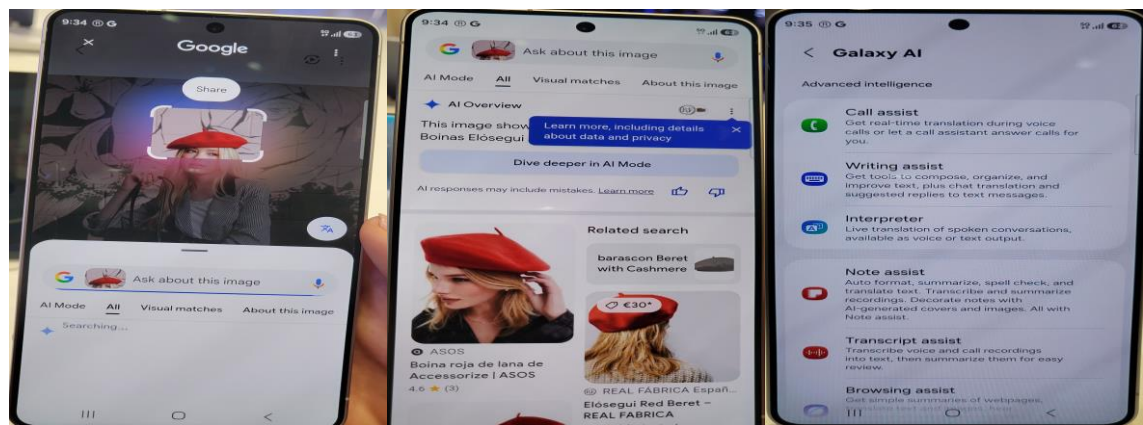
또한, 생성형 AI 단계를 거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Sovereign AI가 부각되면서, AI로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이슈도 부각. 갤럭시S26의 경우 AI로 생성한 이미지에 는 자동으로 watermark가 삽입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이슈를 사전에 예방

그림 4. 삼성 갤럭시S26. Galaxy AI, Google Gemini 내재 및 자체 모델 병행 활용. 사진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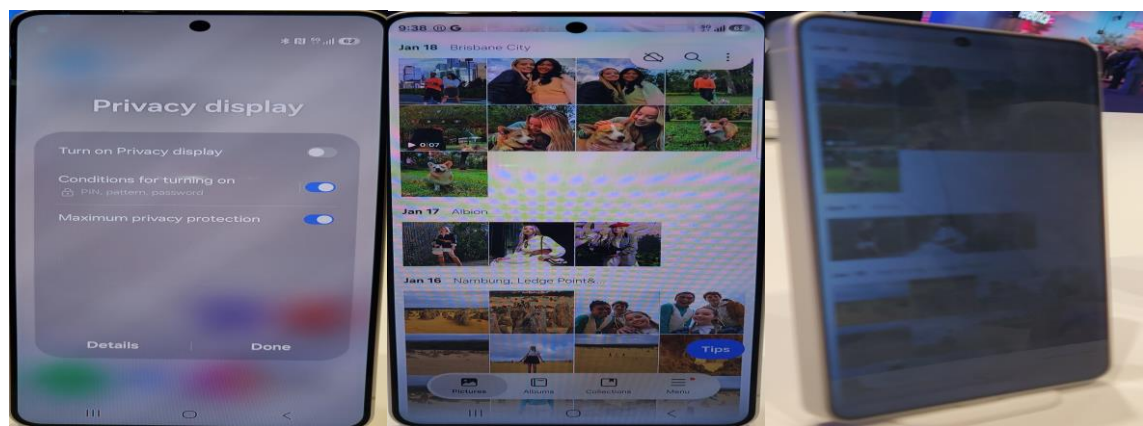
자료: MWC 2026, 삼성전자 갤럭시S26,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삼성 갤럭시S26. Galaxy AI, Google Gemini 내재 및 자체 모델 병행 활용. 쇼핑과의 연계



자료: MWC 2026, 삼성전자 갤럭시S26,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삼성 갤럭시S26. 내재화된 Privacy Mode. 화면 전체 또는 특정 앱 기능에만 적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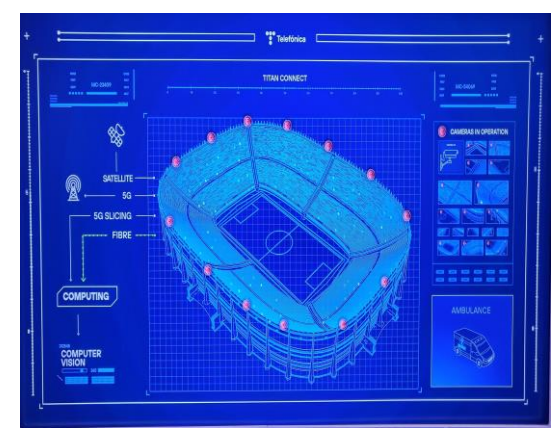
자료: MWC 2026, 삼성전자 갤럭시S26,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gentic AI. 재난 상황에도 적용

재난 대비용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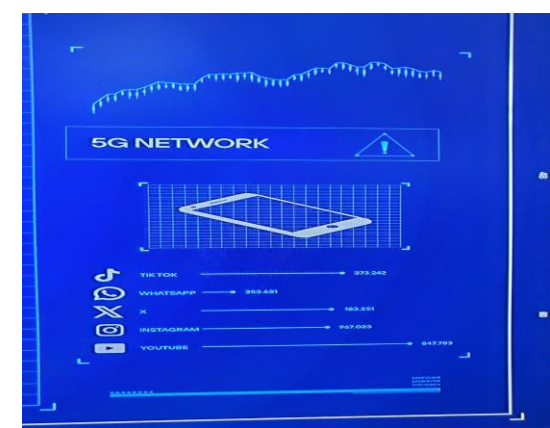
Telefonica가 선보인 개념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경기장의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AI. 5G를 기본 N/W으로 사용하고, 5G Slicing 기술 및 위성까지 보완한 N/W 환경을 구축하고, 경기장을 감싸는 카메라에 AI 기능을 적용하는 것. 실현 가능성 여부는 조금 더 검증 해봐야겠지만, 경기장 내 모든 사람들의 SIM 카드 타입(국가별 분류 등) 및 접속 중인 앱 (TikTok, Whatsapp, X, Instagram, Youtube 등)의 이용 현황 데이터도 확보한다는 개념은, 비상상황에 대한 사전 대응과 개인정보 이슈 사이에서 논쟁이 될 가능성

그림 7. Telefonica TITAN Connect



자료: MWC 2026, Telefonic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8. Telefonica TITAN Conn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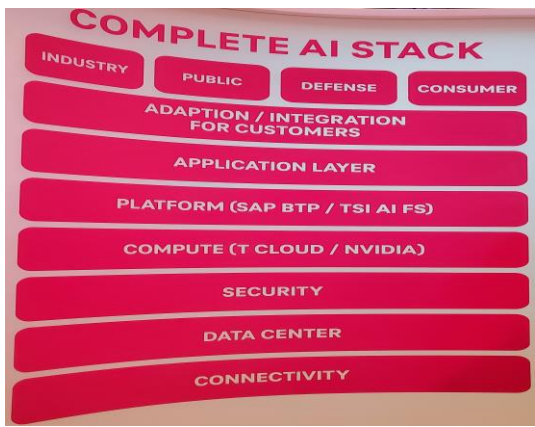
자료: MWC 2026, Telefonic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통신서비스에 내재된 Agentic AI

On Telco AI

Deutsche Telekom이 선보인 T Phone은 On device 라기보다는 On Telco 서비스에 가까운 개념. 생성형 AI로는 Perplexity를 내재했고, Magenta AI라는 Agentic AI 서비스 제공. DT 고객이 사용하는 폰에 T Phone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겠다는 개념. SKT가 2010년도 중반에 T전화를 내재화시켰던 것과 같은 개념. 초기에는 T전화를 앱으로 배포했지만, 이후 SKT 전용 폰에는 기본적으로 T전화 앱이 내장되는 개념. Magenta AI의 기능이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아니었지만, AI의 내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통신사의 N/W 영역 중에 Edge AI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을 의미

그림 9. DT Complete AI St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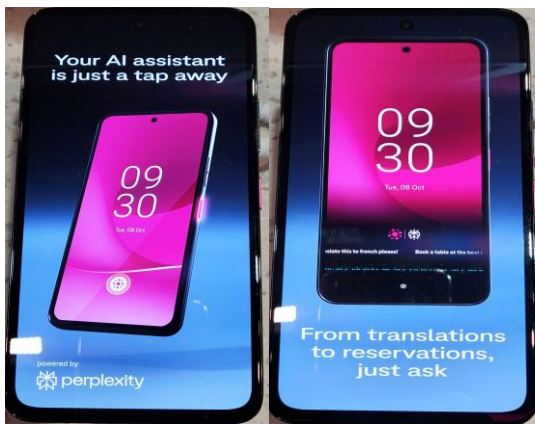
자료: MWC 2026, D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0. DT T Phone



자료: MWC 2026, D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1. DT Magenta AI



자료: MWC 2026, D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2. DT T Magenta AI, AI Glasses



자료: MWC 2026, D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On Telco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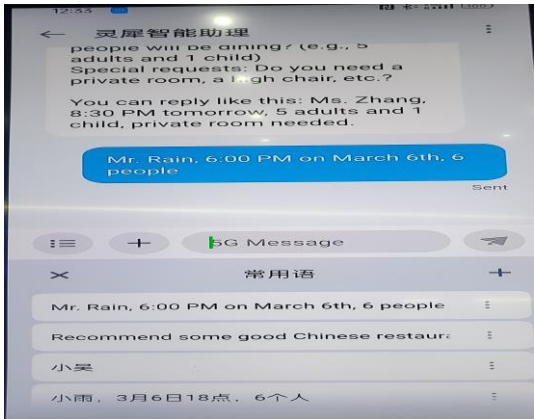
China Mobile도 DT와 같은 행보. CM의 Agentic AI는 이미 2년 전에 선보여서 현재 4.6억명의 단말기에서 지원되고 있고, 월간 활성이용자수(MAU)는 6백만명 이상. 실시간 통역 및 식당 예약 등의 시연에서 지연시간을 느끼지 못 할 정도로 매우 빠른 서비스 제공. CM의 Agent인 LingXi Agent 2.0도 DT와 같이 통신사 서비스에 내재되어 제공. LLM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JIUTIAN AI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

그림 13.CM. Agentic AI + RCS



자료: MWC 2026, CM,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4.CM. Agentic AI + RCS



자료: MWC 2026, CM,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5.CM. Agentic AI + RCS



자료: MWC 2026, CM,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6.CM. Agentic AI + RCS



자료: MWC 2026, CM,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다양한 Vertical Agentic AI

Robot Phone

Honor가 출시예정인 Robot Phone도 AI 기능을 디바이스에 내재한 경우. 본체 뒷면에 부착된 카메라는 기계식 암(Arm) 형태로 펼쳐지는 구조. 피사체의 움직임을 스마트폰에 내재된 AI가 인식하여 Arm을 움직이면서 피사체를 촬영하는 기능으로, 촬영이라는 Vertical에 특화된 On Device AI에 해당

그림 17.Honor. Robot Phone, AI Inter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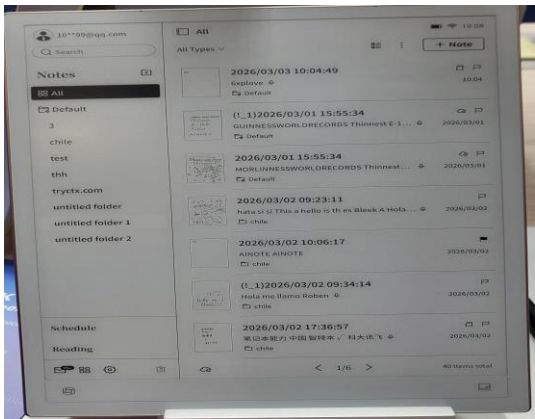
자료: MWC 2026, Honor,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8.Honor. Robot Phone, AI Interaction



자료: MWC 2026, Honor,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9.Flytek. AINOTE2. GPT-5 내장. 노트, 번역



자료: MWC 2026, Flytek,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0.Flytek. AINOTE2. GPT-5 내장. 노트, 번역



자료: MWC 2026, Flytek,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1.Flytek, AINOTE2. GPT-5 내장. 노트, 번역



자료: MWC 2026, Flytek,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2.Flytek, AINOTE2. 20ms 의 low latency



자료: MWC 2026, Flytek,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3.Hometure. Magic Fr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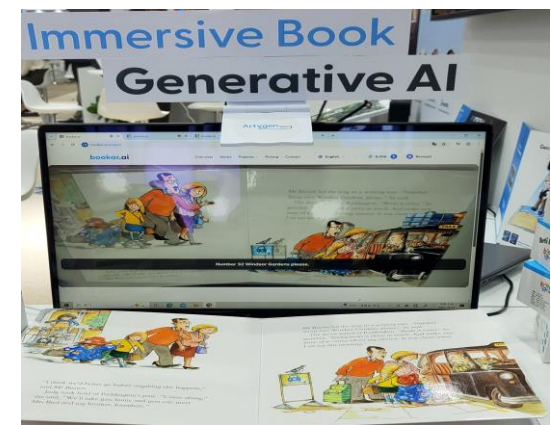
자료: MWC 2026, Hometur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4.Hometure. Magic Fr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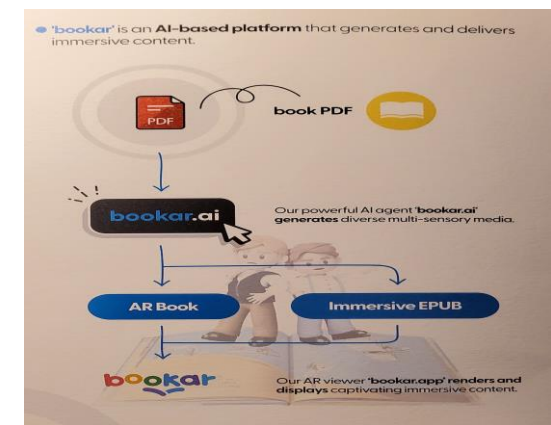
자료: MWC 2026, Hometur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5.Bookar. 책을 AR로 변화. Immersive Book



자료: MWC 2026, bookar,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6.Bookar. 책을 AR로 변화. Immersive Book



자료: MWC 2026, bookar,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걱정되는 일본, SyncMe

NTT Sync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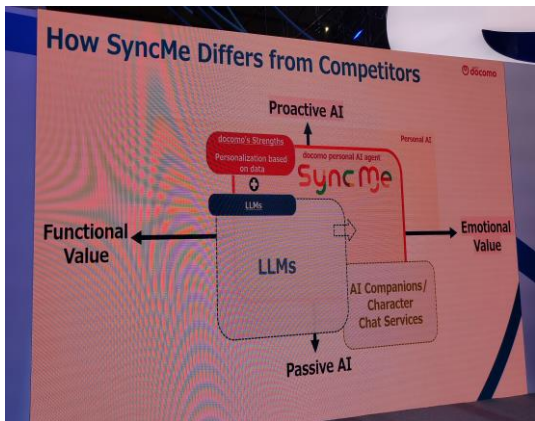
일본의 통신산업을 일컫는 표현 중에 갈라파고스화 되었다는 표현이 있음. 일본은 스마트폰 이전에 이미 고기능의 피쳐폰을 발전시켰는데, 일본에만 적용되는 전용 규격으로 서비스를 진화시키다보니, 4G 및 스마트폰이 도입되는 2010년도 초반부터 글로벌 통신사들 대비 경쟁력 저하.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인 AI Agent인 SyncMe는 피카츄 기반의 개인 캐릭터 생성 및 간단한 대화 기능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Agentic AI 시대에 다시 한 번 갈라파고스화가 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걱정. 과거의 싸이월드를 보는 느낌

그림 27.NTT Sync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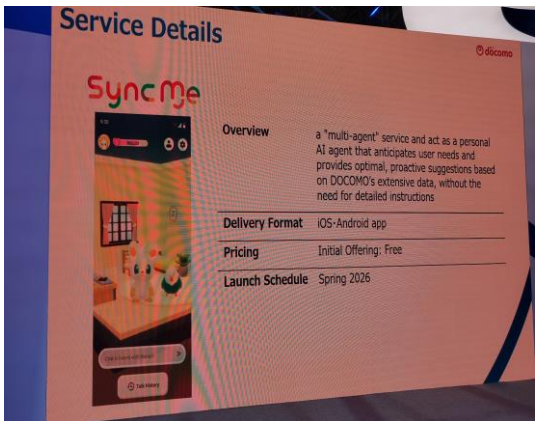
자료: MWC 2026, NT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8.NTT Sync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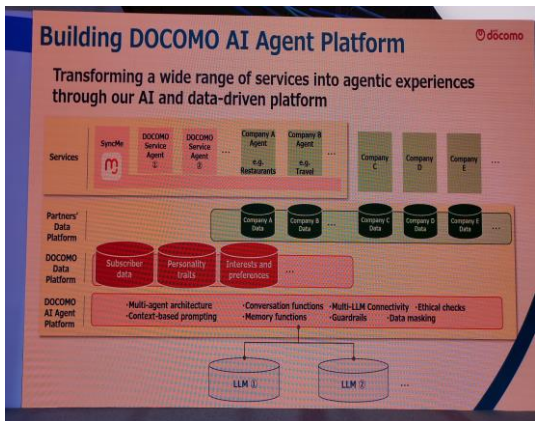
자료: MWC 2026, NT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9.NTT SyncMe



자료: MWC 2026, NT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0.NTT SyncMe



자료: MWC 2026, NT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Ⅲ. 가시화된 BM. Physical AI

더 빨라지고 선명해진 XR

빠른 반응속도
덜 피로한 눈

이번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다양한 XR(eXtended Reality) 기기들을 선보임. 그동안 많은 VR, AR 고글 등을 시연했지만, 항상 아쉬웠던 점은 느린 반응속도와 눈의 피로감. 이번에 공개된 기기들은 실생활에 당장 사용이 가능할 정도의 빠른 반응속도와 크게 개선된 피로감. 삼성 갤럭시XR은 Google과 협력하여 Gemini 및 Google Map, Youtube 등이 내장되어 실감나는 영상 서비스 제공. 특히, 손동작으로 화면 조절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여 영상 선택 및 지도 확대 등의 interactive한 서비스 제공

그림 31.삼성 갤럭시XR



자료: MWC 2026, 삼성전자 갤럭시 XR,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바로 사용 가능한
Glass

Alibaba의 Qwen Glasses는 크게 세 가지 기능 제공. Teleprompter, 번역, 네비게이션. 프롬프트 서비스는 음성을 인식해서 읽는 속도에 맞춘 자막 흐름을 구성하고, 번역의 경우 latency를 거의 느끼지 못 할 정도로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수준. 네비게이션은 도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역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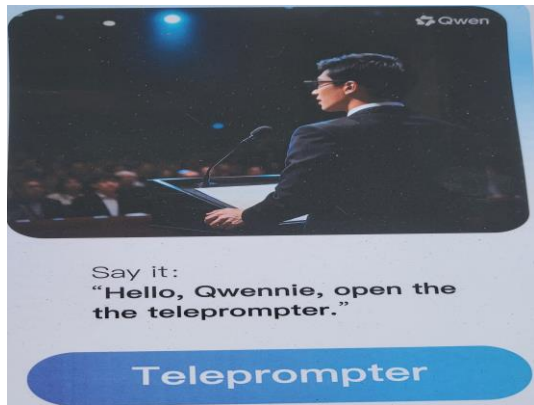
Qwen은 Alibaba의 AI 생태계에서 사용하는 브랜드명이고 LLM으로는 Deepseek 사용

그림 32.Alibaba. Qwen Glas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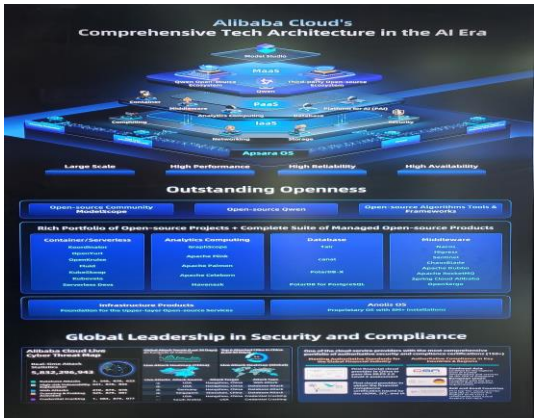
자료: MWC 2026, Alibab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3.Alibaba. Prompter, 번역, 네비게이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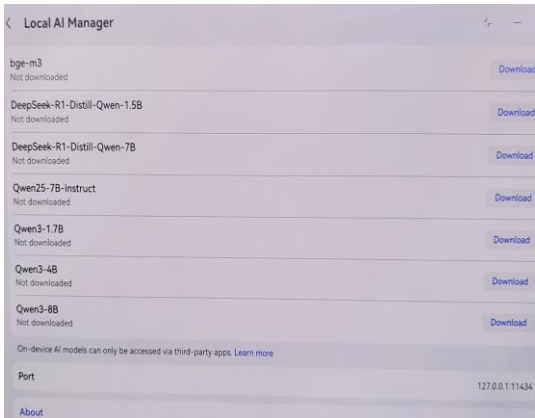
자료: MWC 2026, Alibab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4. Alibaba의 AI 생태계



자료: MWC 2026, Alibab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5. Alibaba, Qwen, DeepSeek 기반



자료: MWC 2026, Alibab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바로 사용 가능한 Glass

Meta의 AI Glass는 이미 미국에서는 상용서비스 시작. RayBan 등 안경 메이커들과 제휴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인 것이 특징이고,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Glass들 중 가장 많은 기능 제공. 사진, 동영상, 음악, 프롬프트, 통역, 지도, 네비게이션 등 총 8개의 기능 제공. 다만, 많은 기능 제공을 위해 Glass 단독이 아닌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사용해야하고, 화면 조작이 음성이 아닌 전용 팔찌를 통한 손동작으로 이루어지게 설계되어 있어서 Glass가 다소 무거운 것은 부담

그림 36. Meta의 AI Glass. 스마트폰, 팔찌, 충전기



자료: MWC 2026, Met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7. RayBan과 제휴 다양한 디자인



자료: MWC 2026, Met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헤드셋으로 구현하는 XR

헤드셋에 카메라와
마이크 내장

XR(eXtended Reality)는 AR(Augmented Reality)와 VR(Virtual Reality)의 확장된 개념. 증강과 가상 등 사람이 오감으로 인식하는 현실과 디지털에 제공하는 가상을 결합하는 포괄적인 개념. Qualcomm이 선보인 Project Motoko는 헤드셋에 XR을 구현한 사례

평소에는 음악 감상 등 본연의 헤드셋 기능으로 활용. 통역/번역 식당에서 메뉴 주문 등 특정 환경에서는 헤드셋에 내장된 스피커를 통해 AI와 대화. 헤드셋에 내장된 카메라가 글씨를 인식 후 내장된 AI를 활용해서 음성으로 안내를 해주는 방식

AI가 일상에 깊숙히 파고들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든 환경에서 AI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의 기능을 일상에서 많이 활용하는 디바이스에 내재화시킨 아이디어

그림 38. Qualcomm, Project Motoko



자료: MWC 2026, Qualcomm,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9. Qualcomm, Project Motoko



자료: MWC 2026, Qualcomm,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점점 더 인간을 닮아가는 휴머노이드

Low latency
Interactive

Honor가 선보인 휴머노이드들은 인간과 매우 흡사.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인지 실시간으로 인간의 동작에 반응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반응속도는 크게 개선. 댄서들과 듀엣으로 춤추는 것은 사전 프로그래밍일 수 있으나,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면서 악수를 하는 것을 봐서는 반응속도(Latency)가 크게 개선된 것 만큼은 명확하다고 판단. 특히, 악수의 경우는 그림의 강도를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반응

Unitree의 휴머노이드 간의 권투 경기와 Agibot 휴머노이드의 브루노마스 음악에 맞춘 댄스 등을 보면, 외형만 로봇일 뿐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정교하게 구현. 그리고 전시장에서 관심을 끈 이 로봇들은 모두 중국 기업들의 제품이라는 것도 중요

그림 40.Honor. The Cyber Duet



자료: MWC 2026, Honor,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1.Honor. The Cyber Duet



자료: MWC 2026, Honor,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2.Honor. The Cyber Duet, Moonw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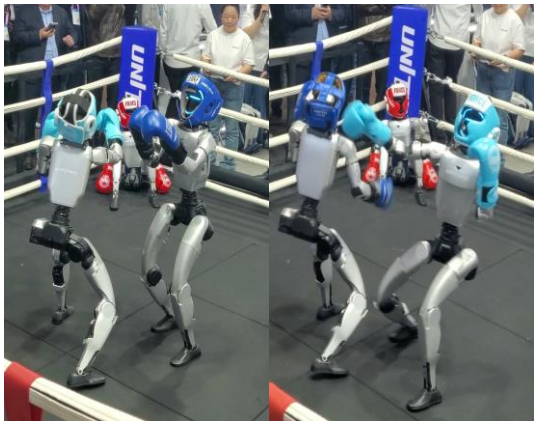
자료: MWC 2026, Honor,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3.Honor. 매우 정교한 손. 그립 강도에 반응



자료: MWC 2026, Honor,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4.Unitree. 휴머노이드의 권투 경기



자료: MWC 2026, Unitre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5.Unitree. 다양한 휴머노이드 라인업



자료: MWC 2026, Unitre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6. Agibot. 휴머노이드의 댄스, 아이돌 보는 줄



자료: MWC 2026, Agibo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7. Agibot. 휴머노이드의 댄스, 아이돌 보는 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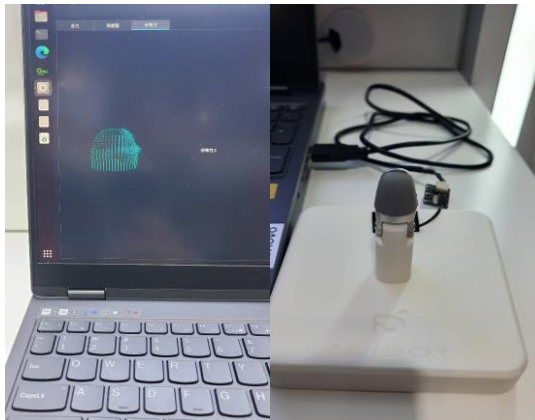
자료: MWC 2026, Agibo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8. Agibot. 휴머노이드의 손, 전구 교체



자료: MWC 2026, Agibo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9. Agibot. 지문 인식 수준의 정교한 손



자료: MWC 2026, Agibo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Low latency
Interactive

앞서 선보인 휴머노이드들은, 아래 사진에서 MWC 2018, 5G가 도입되기 전에 향후 등장할 휴머노이드를 전시한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을 확인 가능. 당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로봇 자체보다는 사람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속도(Latency)

18년의 경우 5G 환경을 유선으로 구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동작을 따라하는데 눈에 띄 정도의 지연이 있었지만, 이번 전시에서 보여준 휴머노이드는 사람이 인지할 수 없을 정도의 반응속도를 보이면서 초저지연이라고 하는 5G의 기술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

Low Latency는 LTE가 10ms를 구현하는 것이고(현실 속도는 40ms), 5G가 1ms 이내로 구현하는 것인데, 5G에서의 현실 속도는 20ms 수준. 1ms까지 구현이 가능해지면, 무선 N/W 만으로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수준

그림 50. 인간의 동작을 따라하는 초기 휴머노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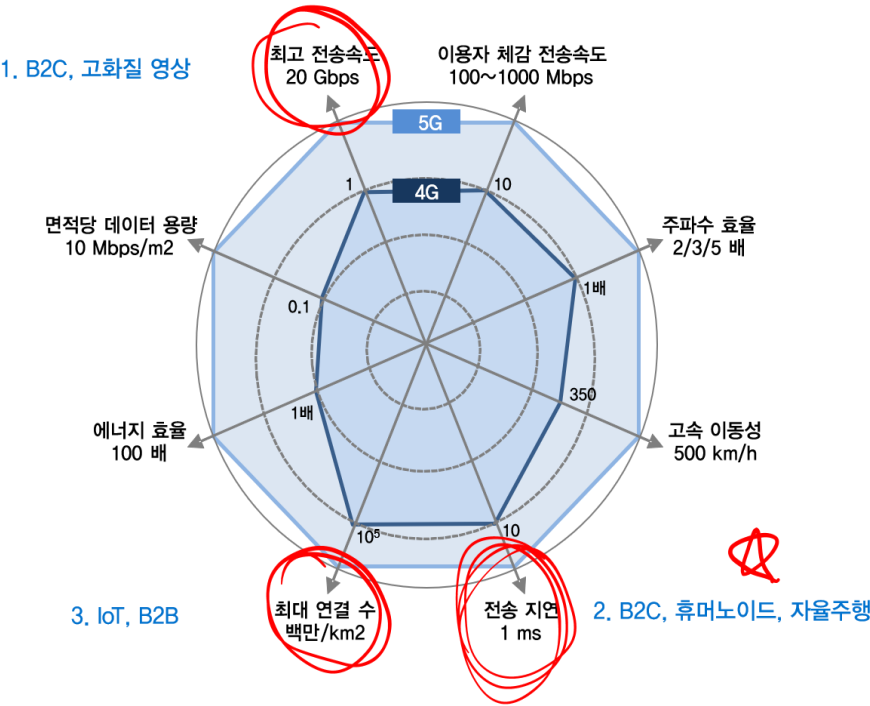
자료: MWC 2018, NT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1. 인간의 동작을 따라하는 초기 휴머노이드



자료: MWC 2018, NT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2. 5G의 정의는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데이터(20Gbps), 더 빠른 시간(1ms, Low Latency)에 전송하는 것



자료: ITU,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다양해지는 Vertical 로봇. 특정 영역에 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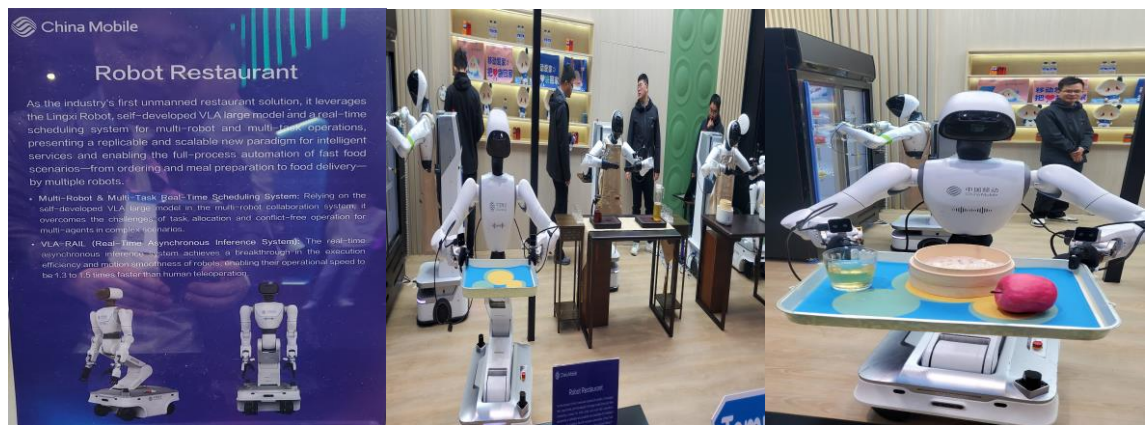
Physical AI에도
Vertical

Physical AI라고 하면 인간의 모든 기능을 대체하는 휴머노이드를 상상하는 경우가 많으나, Agentic AI의 사례들 처럼 Physical AI도 특정 산업 및 환경에 적합한 Vertical로 진화 중. 아래 다양한 사례들 소개. 레스토랑에서 재료 선정부터 조리 및 서빙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가정에서 의료용 및 보안용으로 활용하는 로봇 등

특히, 중국 기업들의 기술 진화와 빠른 서비스 도입에 주목할 필요. 앞서 소개한 Honor의 Duet Dance 시연, Unitree 로봇 권투 경기 등 휴머노이드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 뿐만 아니라 Vertical 에서도 눈에 띄는 약진

China Mobile은 Robot Restaurant를 선보였고, Chengdu에 기반을 둔 CHRIC(Human Robot Innovation Center)는 공룡을 재연한 Dinobot을 만들어서 이미 중국 디즈니랜드에 납품했고, J-Panda 등은 가이드와 모니터링 등의 용도로 활용

그림 53. CM. Robot Restaurant, 재료 선정부터, 조리 및 서빙까지 원스탑 서비스



자료: MMC 2026, CM, 대산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4. CHRIC. DinoBot



자료: MMC 2026, CHRIC, 대산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5. Magiclab. 로봇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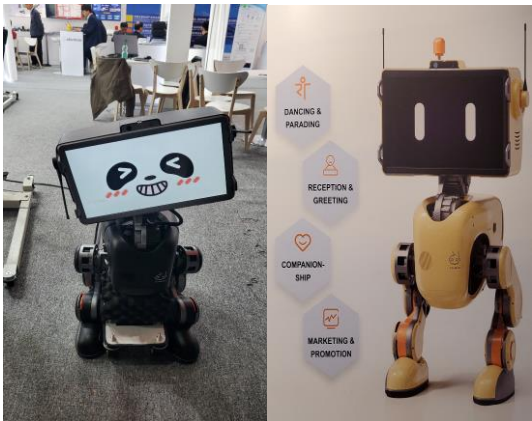
자료: MMC 2026, Magiclab, 대산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6.CHRIC. J-Panda



자료: MWC 2026, CHR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7.CHRIC. Tang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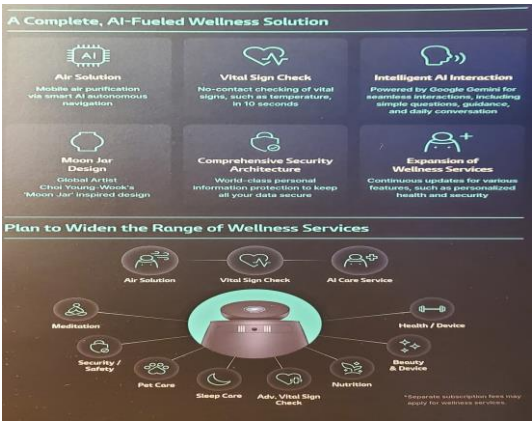
자료: MWC 2026, CHR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8.NAMUH. Wellness Robotics



자료: MWC 2026, S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9.NAMUH. Wellness Robo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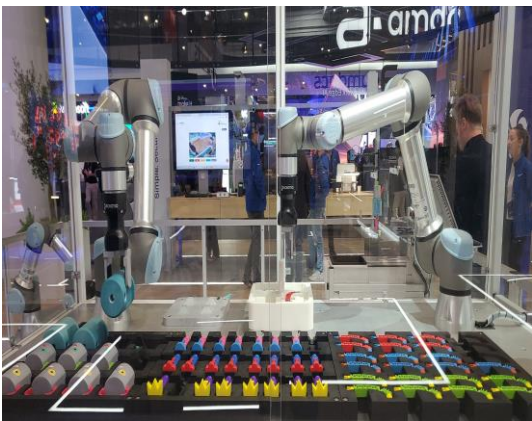
자료: MWC 2026, S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0.Robot Manufacturing. 조립에서 포장까지



자료: MWC 2026, Qualcomm,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1.Robot Manufacturing. 조립에서 포장까지



자료: MWC 2026, Qualcomm,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2. Robot Manufacturing. 조립에서 포장까지



자료: MWC 2026, Qualcomm,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3. Robot Manufacturing. 조립에서 포장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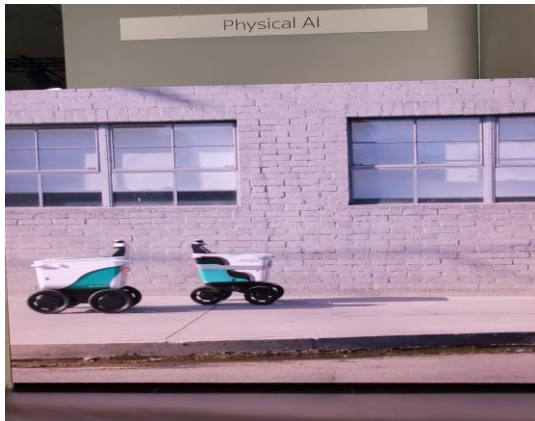
자료: MWC 2026, Qualcomm,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4.배달 전용 Ro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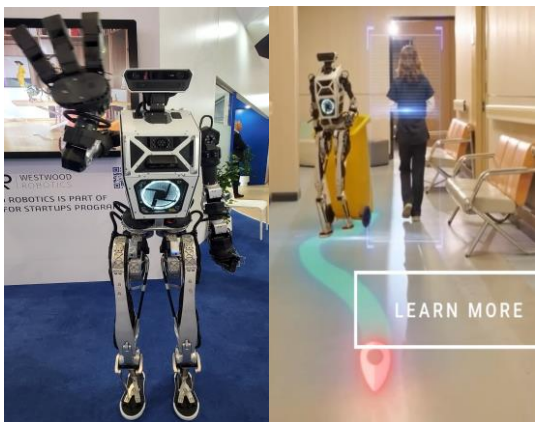
자료: MWC 2026,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5.배달 전용 Ro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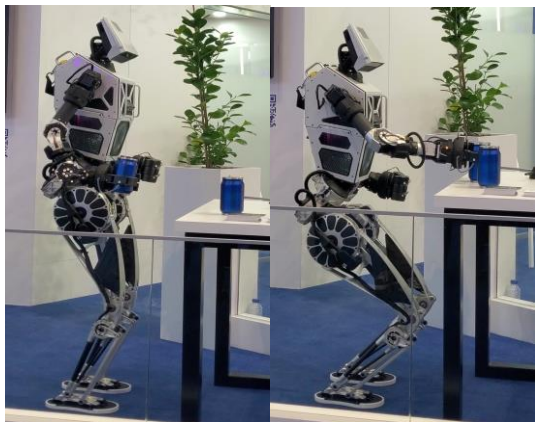
자료: MWC 2026,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6.분리수거 전용 Robot



자료: MWC 2026, Dassaul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7.분리수거 전용 Robot



자료: MWC 2026, Dassaul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IV. N/W에 접목된 AI

Full Stack AI. 인프라부터 미들웨어와 서비스까지

풀스택 AI
Infra, Model, Platform,
Service

AI 풀스택(Full Stack): 칩셋부터 모델, 서비스까지 AI의 모든 밸류체인인 독자 기술 운영을 의미. 대표적으로 SKT가 추진하는 AI의 BM. Full Stack은 보통 3~4개의 레이어로 구성 되어있고, SKT의 경우는 인프라, 모델, 플랫폼, 서비스 등 4개의 영역으로 구성

SKT가 풀스택 AI를 지향하고 있지만, 4개 레이어를 전부 주력으로 삼기보다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려는 전략. 가장 근간이 되는 인프라 레이어에 있는 AIDC는 SKT뿐만 아니라 통신사들에게 강점이 있는 영역이어서, AIDC 및 AIDC를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GPU에 집중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윗단계에 있는 서비스 중 B2C 영역에 해당하는 Agentic AI와 일부 Physical AI에 집중

인프라: AIDC 및 AIDC를 구성하는 AI 산업의 가장 기본 요소들

모델: 독자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A.X K1

플랫폼: GPU-based AI-RAN 등 N/W 효율화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단계

서비스: A.X를 중심으로한 Agentic AI와 그룹사 Process 개선을 위한 Physical AI

1) 인프라: AIDC를 기반으로 GPUaaS로 확장

기존 DC는 약 100~130MW 정도의 용량 운영 중. 울산 AIDC는 100MW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글로벌 빅테크인 A사와 장기 사용 계약), 고객사 발굴과 병행한 1GW 규모로의 확장 계획 중. AIDC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도 보유

AIDC 내 다양한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지능형 플랫폼 AIDC 인프라 매니저와, Immersed ESS(액침냉각 에너지 저장 시스템), AIDC 구축과 운영을 위한 고성능·고효율 클라우드 플랫폼인 페타서스 AI 클라우드, K-소버린 GPUaaS(GPU as a Service) 솔루션인 해인 클러스터, AI 인퍼런스 팩토리, AIDC Secure Edge 등 공개

2) 모델: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단계에 진출한 5,190억개 파라미터 규모의 초거대 AI 모델 A.X K1

3) 플랫폼: AI-RAN, BSS AI Ecosystem, AI Agent Framework 등

GPU-based AI-RAN(Radio Access Network). AI를 적용해 네트워크 운영 최적화

BSS AI Ecosystem. 영업·과금·고객관리 시스템 등에 AI를 접목해 사업의 근간이 되는 무선서비스 사업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 발굴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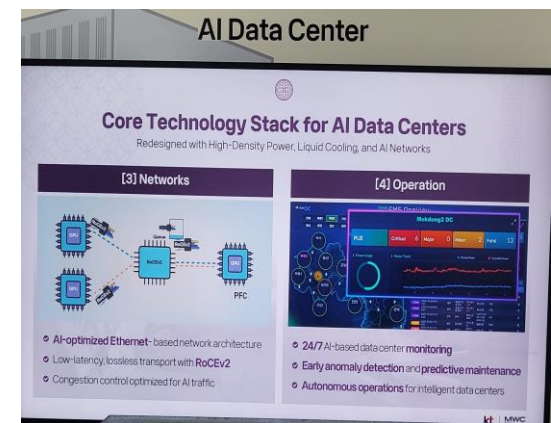
4) 서비스: Agentic AI와 Physical AI. Agentic AI는 통신산업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B2C 영역. Physical AI의 경우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3단계에 해당하는 플랫폼 영역에서, AI를 접목한 N/W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Physical AI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B2B 역할

그림 68.AIDC를 포함한 AI 산업의 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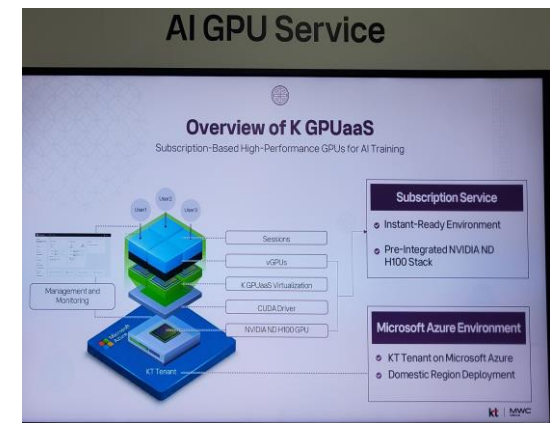
자료: MWC 2026, S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9.KT. AIDC



자료: MWC 2026, 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0.KT. GPUaaS



자료: MWC 2026, 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통신의 역할: AI를 적용한 N/W 효율화

N/W 효율화

무선 서비스는 사용자가 요청하면 결과물을(텍스트, 사진, 영상 등) 서버에서부터 유저의 디바이스로 전송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보니 Downlink와 Uplink가 비대칭으로 운영. LTE까지는 Down과 Up의 주파수가 별도로 운영되었지만, Downlink의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게 설계. 5G부터는 Down과 Up의 주파수가 구분없이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속도는 여전히 Downlink 속도가 압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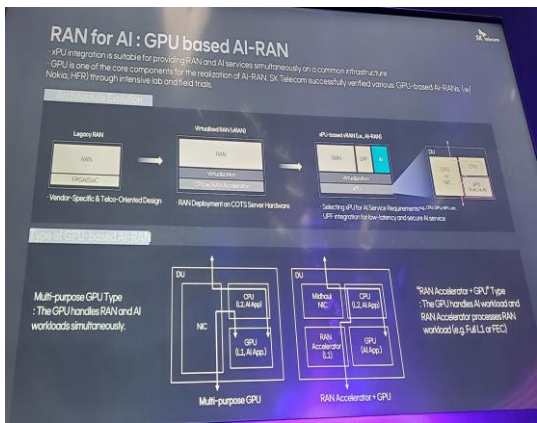
AI 서비스는 AI가 서버에서 제공되는 경우는 단방향성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데이터가 수시로 움직이기 때문에, Uplink의 속도도 중요해지고, 전체 Latency(전송 지연속도) 또한 중요. 통신사들의 기본적인 BM은 소비자들로부터 N/W를 사용하는 대가를 받고, 안정적이고 빠른 데이터 전송 환경을 구축 및 유지해주는 것

5G-SA(Stand Alone, 코어망을 5G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 및 5G-Advanced를 포함해서 N/W의 효율적 활용 방안이 언급되는 이유. 또한 AI-RAN(Radio Access Network)을 도입하여, Down과 Uplink간 트래픽을 예측하고 리소스를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Latency를 단축시키는 다양한 방법도 등장

RAN은 각 기지국이 정해진 리소스에서 트래픽을 처리하는 폐쇄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서, Cloud RAN을 통해 기지국 장비를 범용 서버로 대체하고 중앙집중형 구조로 설계함으로써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단계를 거쳐 AI-RAN을 도입하는 단계까지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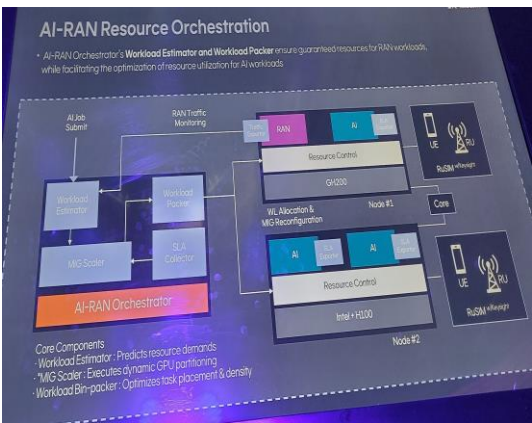
AI-RAN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지국에 GPU를 탑재하는 Edge AI, 즉, Cloud 환경하에서 각 기지국이 보다 능동적으로 트래픽을 예측함으로써 기지국 주변의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술도 도입 중

그림 71.AI-R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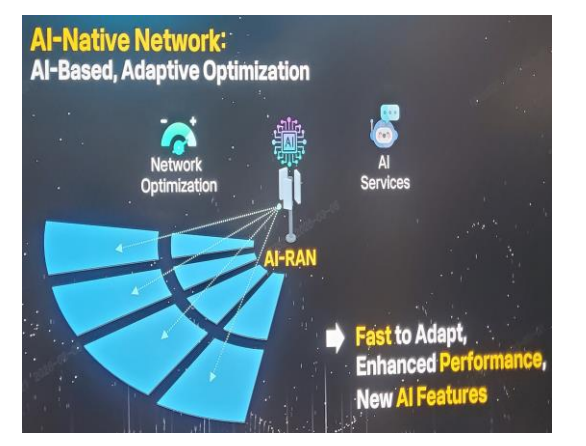
자료: MMC 2026, S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2.AI-R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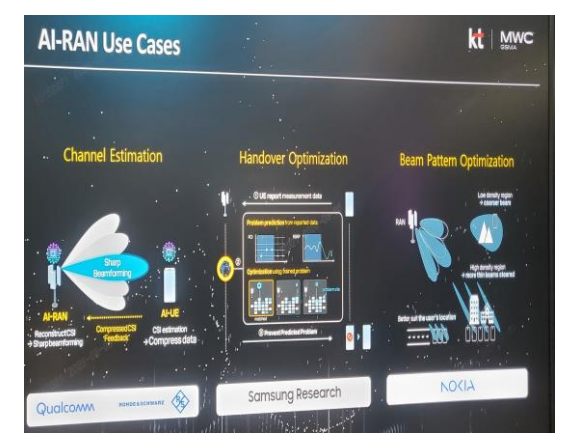
자료: MMC 2026, S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3.AI-RAN



자료: MWC 2026, 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4.AI-RAN



자료: MWC 2026, 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5.통신의 역할. AI를 적용한 N/W 효율화



자료: MWC 2026, S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6.통신의 역할. AI를 적용한 N/W 효율화



자료: MWC 2026, S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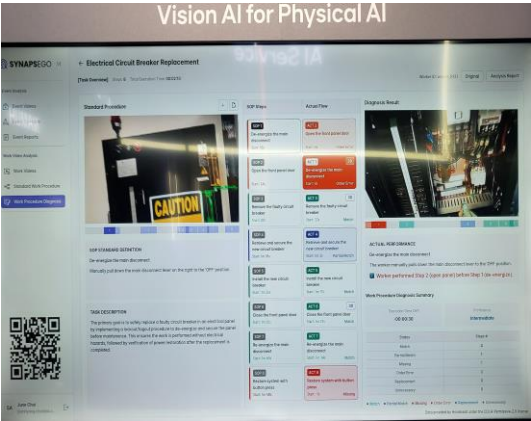
통신의 역할: N/W 을 활용한 Workflow 개선

Workflow 개선

Physical AI는 AI의 진화단계에서는 Agentic AI 다음 단계이고 아직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 화하기 전이어서 통신도 도전해볼 만한 영역. 또한, AI를 Layer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Agentic AI와 같이 가장 윗단계에 있는 서비스 영역이어서, 통신사들에게 우호적인 영역 다만, 통신사들이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신이 Physical AI를 준 비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N/W을 활용한 Workflow 개선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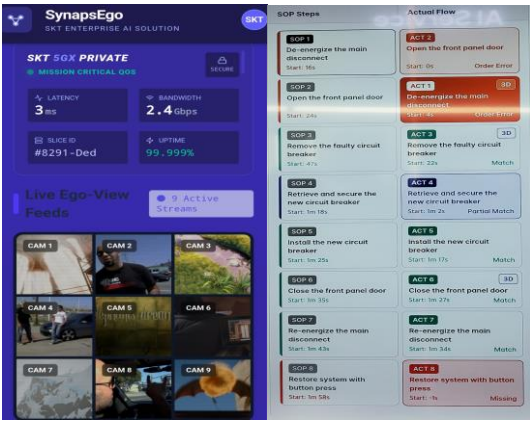
SK하이닉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에 Physical AI를 적용해서 공장 운영 효율성을 몇 %가 아니라 0.몇 %만 절감해도 그 효과는 대단. 제조산업의 경우 보안 이슈로 글로벌 모델 보 다는 Sovereign 모델이 적합하기 때문에, SKT의 경우 독자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후 Physical AI에 적용하려는 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SK그룹내 다른 분야 및 국내 다 른 기업에도 적용 가능하고, Sovereign AI의 수요가 증가하면 글로벌 확산도 가능할 것

그림 77.통신의 역할. N/W 을 활용한 Workflow 개선



자료: MMC 2026, S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8.통신의 역할. N/W 을 활용한 Workflow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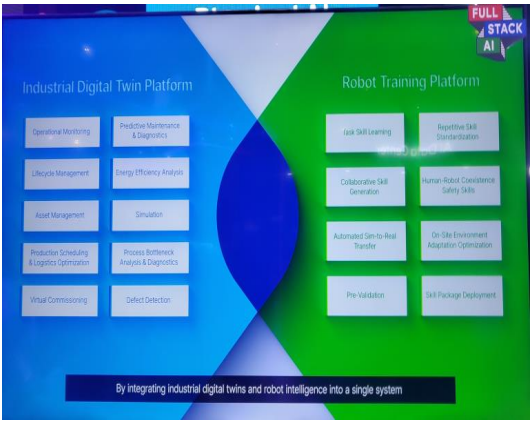
자료: MMC 2026, S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9.AI Agent 는 Infra 와 모델 및 AI Platform 을 기반으로 도출



자료: MMC 2026, SKT,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80.Digital Twin, Robot Training



자료: MMC 2026, S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81.Digital Twin, Robot Training



자료: MMC 2026, S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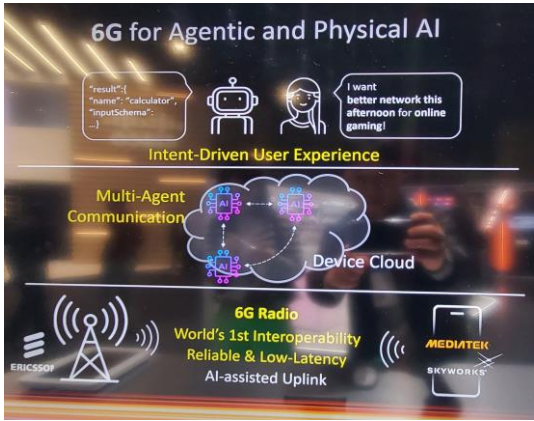
6G 도입 필요성 증가

6G 도입 필요성

5G보다 훨씬 빠른(Down 기준 100~1,000배 정도이지 않을까) N/W 환경인 6G가 구축 되면 AI의 진화는 더 빨라지겠지만, 6G는 30년경에 상용화가 예정되어 있고, 상용화도 전 국망 개념 보다는 Pico 또는 Femto Cell 개념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 지는 5G-SA, 5G-Advanced 등 기존 N/W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

6G를 포함한 통신의 기술 표준은 3GPP에서 연구 후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제정. 25년말부터 5G-Advanced 연구의 마지막 단계인 Release 20 시작. Release 20은 5G-Advanced를 마무리 지으면서 6G에 대한 스터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27년 중순까지 진행. 6G라고 공식적으로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26년초부터 Release 21이 시작되면서 6G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보통 Release가 2~3년 정도 진행되고 이후 1~2년 후에 상용화되는 것을 감안하면, 6G는 30년경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

그림 82.통신의 역할. 6G 도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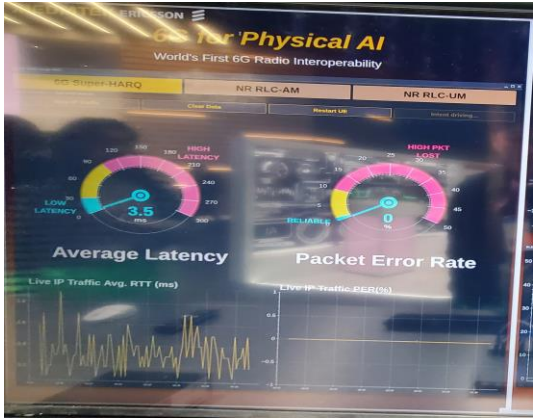
자료: MWC 2026, Mediatek,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83.통신의 역할. 6G 도입의 필요성



자료: MWC 2026, Mediatek,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84.6G 도입의 필요성. Latency 개선



자료: MWC 2026, Mediatek,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85.6G 도입의 필요성. Uplink 성능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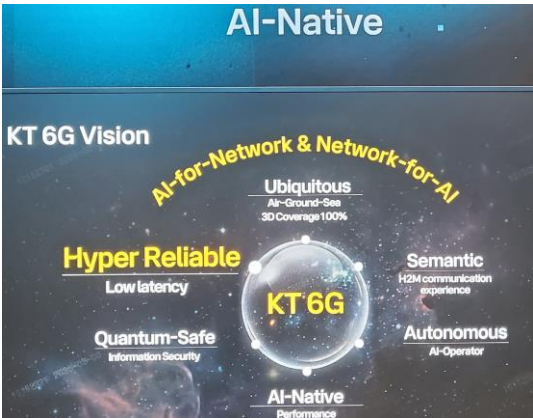
자료: MWC 2026, Mediatek,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86. 6G Device Cloud Prototype



자료: MWC 2026, Mediatek,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87. 6G 는 아직 개념적으로만 접근



자료: MWC 2026, 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88. KT. 양자암호키분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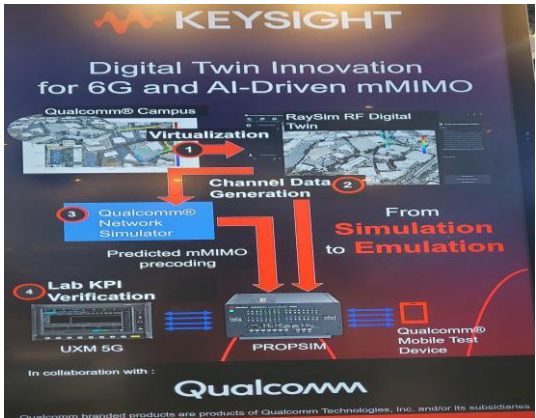
자료: MWC 2026, 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89. KT. 양자암호통신으로 4.8km 전송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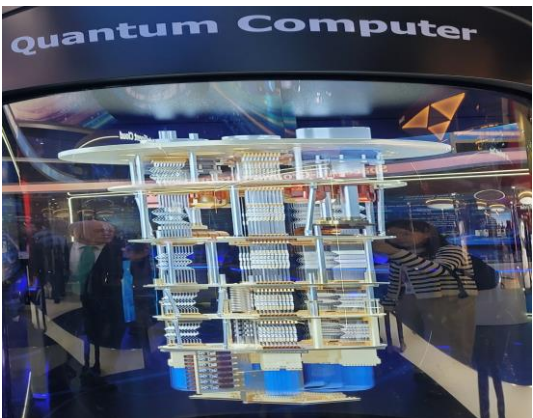
자료: MWC 2026, 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90. Qualcomm. AI-Driven mMI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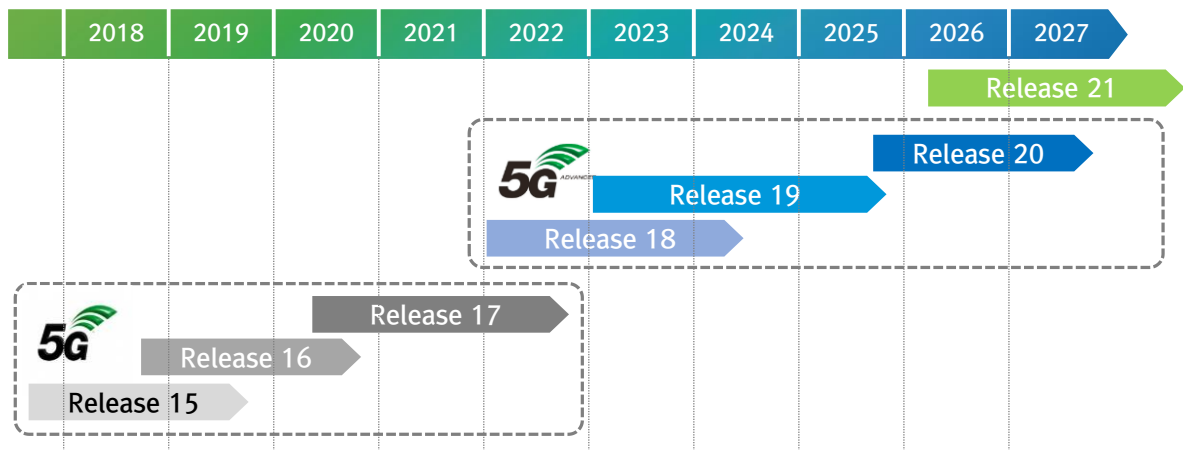
자료: MWC 2026, Qualcomm,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91. CM. 양자컴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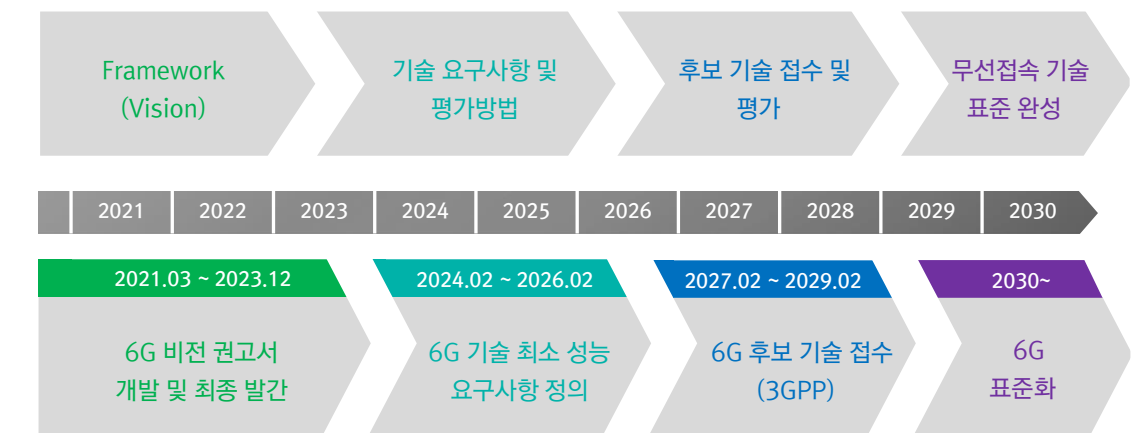
자료: MWC 2026, China Mobil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92.5G-SA의 마지막 단계 Release 20 시작. 6G 스테디도 본격화. 26년 중 Release 21 시작



자료: 3GPP,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93.26년초 Release 21 시작하면서 6G 표준화도 본격적으로 시작



자료: 3GPP,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V. K-Telco의 AI BM

AI 발전 단계에서는 AI 에이전트 이후 영역 공략

통신은
AI 에이전트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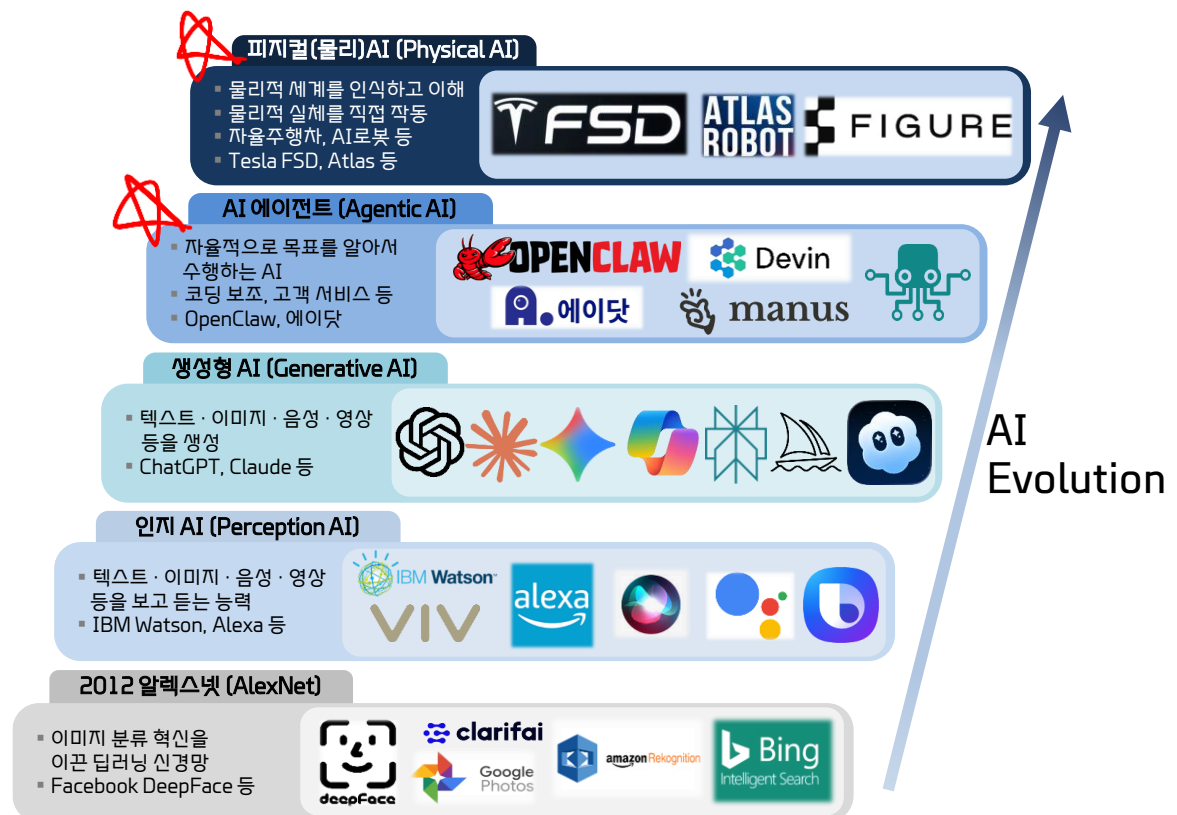
AI를 발전 단계로 보면 26년 현재 AI는 AI 에이전트와 Physical AI를 준비하는 단계. 그동안 수 많은 컴퓨팅 파워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LLM 개발 및 생성형 AI 도입은 마무리 단계에 진입

한국은 현재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을 개발하는 국가대표 AI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27년에 최종 2팀을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 진행 중. 다만, 독파모는 Sovereign AI를 위한 일종의 백업을 마련하는 것이고 글로벌하게 사용되고 있는 생성형 AI 모델들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

통신사들은 AI 발전 단계에서는 생성형 AI를 건너뛰고 AI 에이전트를 준비하는 중. 대표적으로 SKT의 에이닷과 LGU+의 ixi가 AI 에이전트의 후보들

Physical AI는 아직 통신사들이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주행차와 AI 로봇 등의 영역에서 low latency의 N/W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신이 공략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 5G-SA와 5G-Advanced로의 진화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그림 94.AI 발전 단계(CES 2025, 전슨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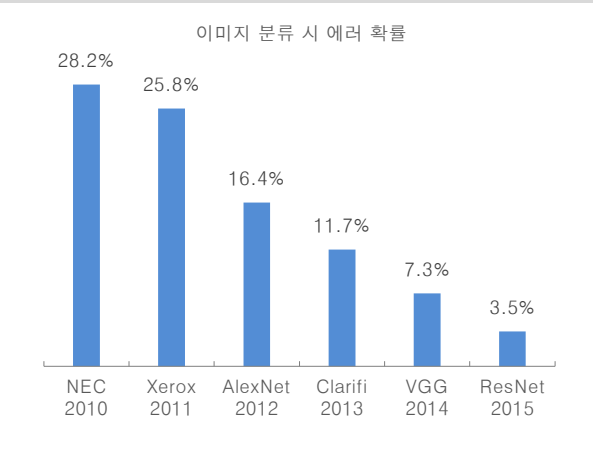
자료: CES 2025,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표 1. AI 발전 단계

구분	출시	대표 모델	학습 데이터	가용 데이터	파라미터	필요 인프라
AlexNet	2012	AlexNet	이미지/텍스트	이미지/텍스트	60M	단일 GPU 2개
Perception AI	2015	ResNet-101	이미지/영상	이미지/영상	250~600M	멀티 GPU 서버
Generative AI	2022	ChatGPT	웹 기반 토큰	멀티모달 데이터	500B 이상 (GPT-3.5~)	A100/H100 대규모 투입
Agentic AI	2025	manus (서비스)	외부 LLM 활용	실시간 외부 데이터	500B~1T (외부 LLM)	대규모 GPU 클라우드
Physical AI	2026~	GR00T N1	Trajectory 데이터, 디지털트윈 SIM	센서 데이터, SIM 데이터	1T 이상 (추정)	대규모 GPU, 로봇 제어용 가속기

자료: CES 2025,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95.Alexnet 이후 이미지 분류 성능 고도화



자료: ILSVR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96.Chat G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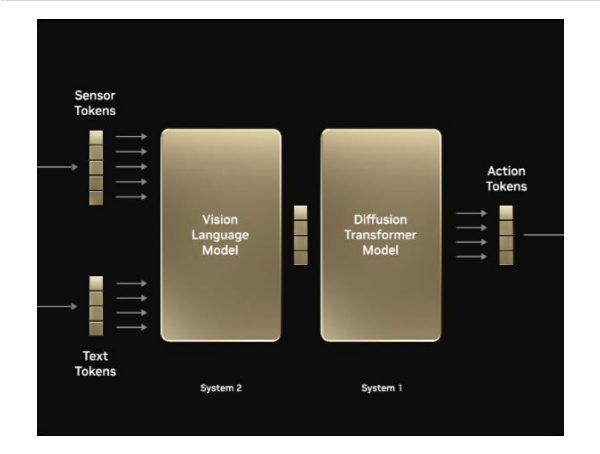
자료: 오픈시,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97.manus AI



자료: manu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98.GR00T N1



자료: Nvidi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DC는 든든한 기반
최상단의 서비스 공략

AI Layer에서는 Infra와 미들웨어 중심에서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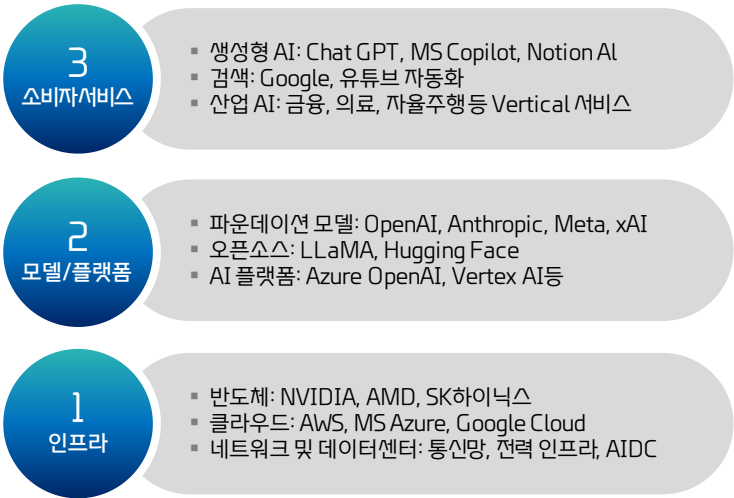
AI 산업을 Layer 기준으로 정의해보면, 밑바탕인 인프라와, 이를 기반으로 주로 B2B 영역에 해당하는 미들웨어, 그리고 가장 상단에 자리한 서비스의 3단계로 구성

통신은 AI 산업 초기부터 밑바탕인 인프라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에 주력

26년 현재 통신은 미들웨어에서는 AIX를 통한 효율성 개선과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하는 솔루션 개발을 진행 중이고, 가장 상단에 자리한 서비스에서의 BM 발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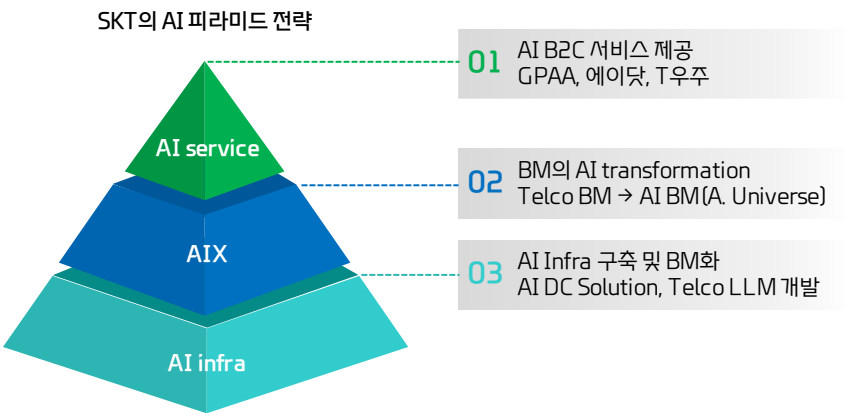
서비스 중 가장 상용화에 근접한 영역이 AI 에이전트와 자율주행

그림 99. AI의 La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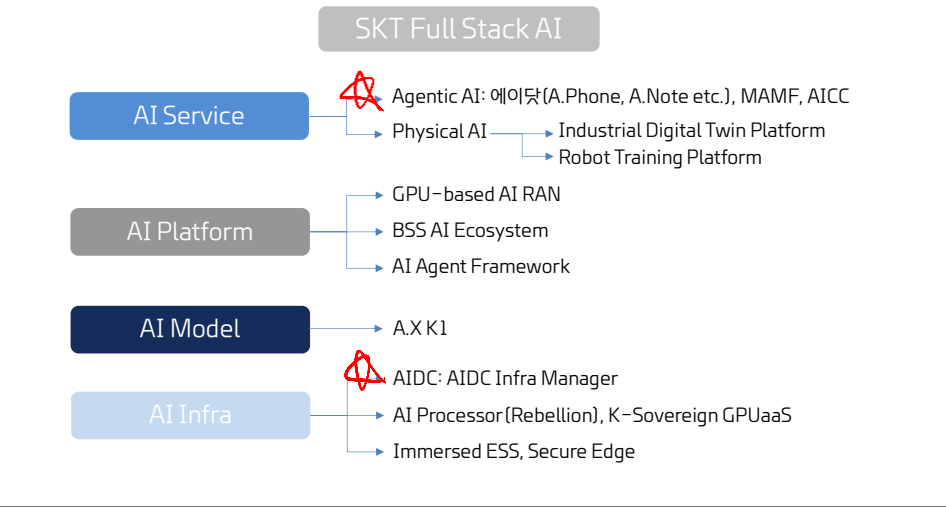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00. AI의 Layer, SKT, Infra에서부터 AIX와 AI Service까지 모든 Layer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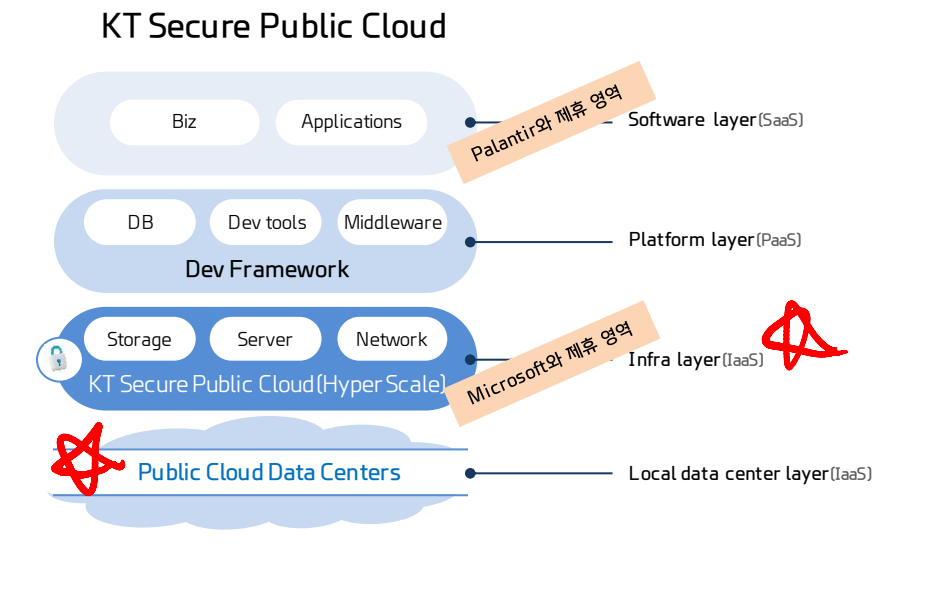
자료: S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01. SKT 의 Full Stack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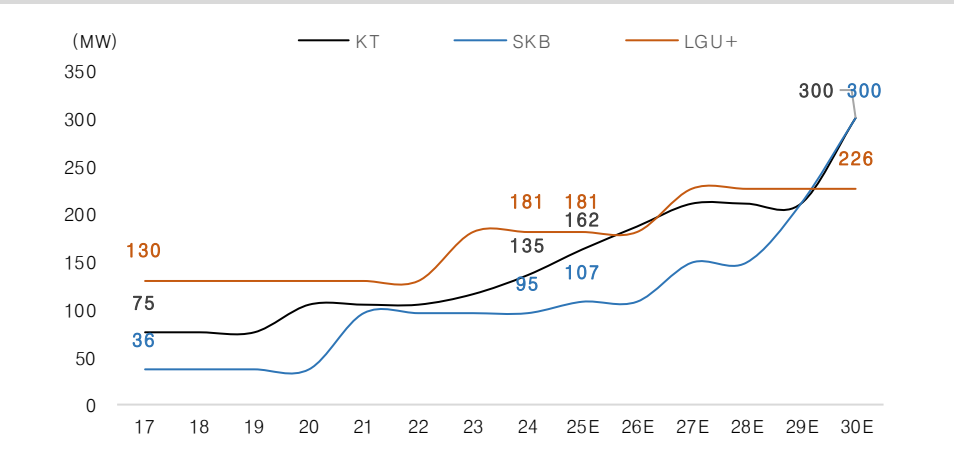
자료: MWC 2026, S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02. AI 의 Layer. KT. IaaS와 SaaS 영역에서 글로벌 빅테크들과 제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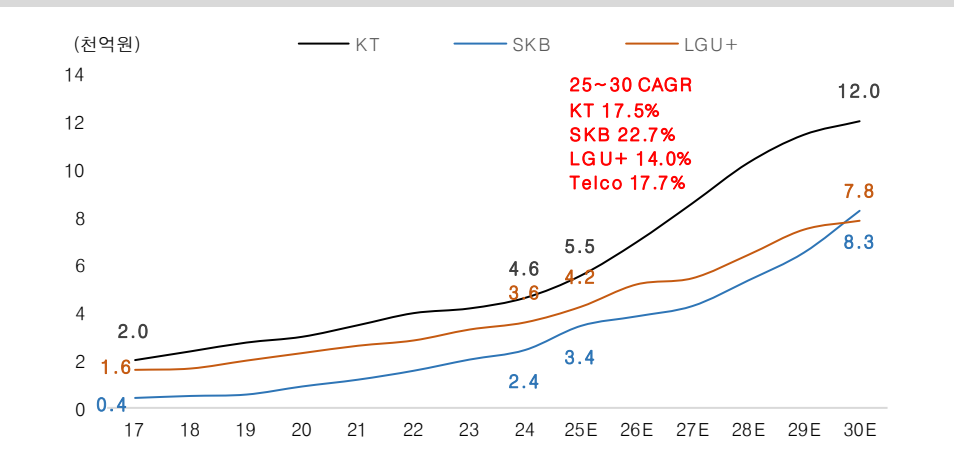
자료: 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03. DC는 AI 산업의 근간, 30년 각 사별 용량 300MW 수준 전망



자료: 각 사 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04. DC 매출은 연평균 18% 성장 전망



자료: 각 사 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독자파운데이션 모델

Sovereign(주권)화 보완재 역할

지난 몇 년간 급격하게 이루어진 AI 고도화로 인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격화와 함께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고위험 AI에 대한 통제 필요성 부각. 또한, 소수 빅테크의 LLM에 의존하는 시장 구조는 API 가격 인상 리스크, 데이터 역외 이전 문제와 같은 우려도 촉발. 각국은 전략자산의 범위를 반도체, GPU에서 데이터로 확장하고, AI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지정하여 특정 산업·언어에 특화된 Sovereign AI의 개발 가속화

한국 역시 25.8월 한국형 LLM, 멀티모달 모델 개발을 위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하 독파모) 프로젝트 출범. 독파모는 5개 정예팀 중 최종 2개 팀이 남을 때까지 단계별 심사를 진행하며, 최종 선정된 모델의 가중치는 대중에 공개. 각 팀은 단일 회사가 아닌 컨소시엄 구조이며, 모델 개발부터 연구·인프라·데이터·서비스에 이르는 AI 생태계를 풀스택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구성. 이는 모델 개발 단계에서 독자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개발 완료 후에는 즉각적인 투입, 검증을 통해 구조적인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기 위함

현재 프로젝트 진행상황은, 지난 26.1월 1차 평가를 통해 LG, SKT, 업스테이지의 3개 컨소시엄이 2차 평가에 진출,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 컨소시엄은 탈락. 이후 공모를 통해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컨소시엄이 추가로 선정되어, 2차 평가에는 LG, SKT, 업스테이지,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주도의 4개 컨소시엄이 참여할 예정

다만, 독자파운데이션 모델은 글로벌 사용자들을 확보한 생성형 AI를 대체하는 용도라기 보다는 한국의 데이터에 더 적합한 요소들을 가미하는 보완재로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

표 2.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심 목표	해외 대규모 언어모델 (ChatGPT, Claude, Gemini 등) 의존도 축소, 국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통한 AI 주권 확보
추진 방식	복수 컨소시엄의 단계별 탈락/선발 구조
평가 항목	1) 모델 성능, 2) 수익화 가능성, 3) 독자성
주요 참가사	LG, SKT, 업스테이지, 네이버클라우드(탈락), NC AI(탈락), 모티프테크놀로지스(추가공모), 트릴리온 랩스(추가 공모)
정부 지원	공통 데이터 지원 및 정예팀별 GPU 정부 구매분 1만여장 활용 지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언론기사 인용,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표 3.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 주요 타임라인

일시	내용
25.08.04	과기정통부 주도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출범, 10개 후보 중 정예팀 5곳(SKT, LG, 업스테이지, 네이버 클라우드, NC AI) 선정
26.01.04	독파모 정예팀의 5개 AI 모델 모두가 Epoch AI 선정 ‘Notable AI models’ 에 등재
26.01.14	1차 평가 결과 발표, LG, SKT, 업스테이지 3개 팀 2차 평가 진출, 네이버클라우드, NC AI 탈락
26.02.12	추가 정예팀 1곳 선할 공모,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컨소시엄, 트릴리온랩스 컨소시엄 등 지원
26.06~	26.6월말~7월초 2차 평가 공개, 12월말 3차 평가 후, 27년 상반기 최종 2개팀 선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언론기사 인용,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05. 독파모 5개 정예 컨소시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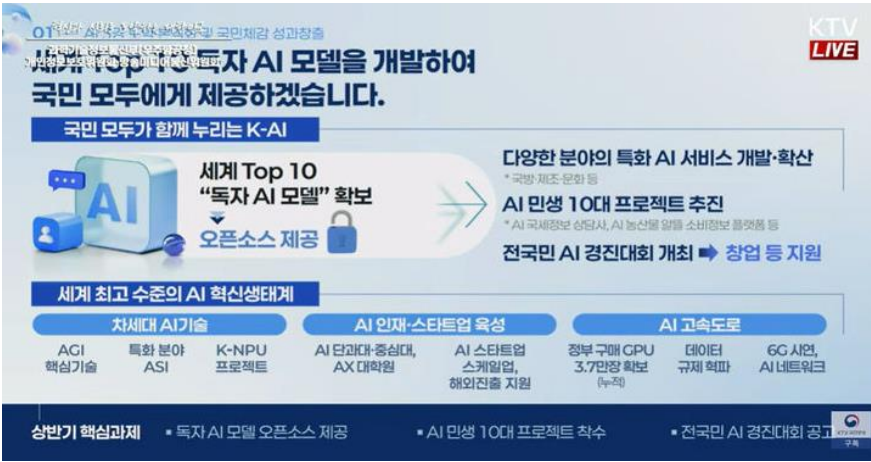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인용,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06. 주요 평가결과

기업	평가결과	사유
KT, 카이오	정예팀 탈락	
네이버 클라우드	1차 탈락	독자성 기준 미충족
NC AI	1차 탈락	성능 심사평가 최하위

자료: 언론보도 인용,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07. 과기정통부 2026 업무계획 보고(25.12)



자료: KTV,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SKT A.X K1 모델

에이전트 AI인
에이닷의 기반
Physical AI에도
중요

A.X K1은 크래프톤, 포트투닷, 라이너, 셀렉트스타 등이 참여하고 SKT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모델. 독파모 1차 평가에서는 NIA 벤치마크에서 LG 컨소시엄과 함께 최고점을 기록하며 통과, Hugging Face에 자체공개한 기술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벤치마크 지표에서 경쟁모델인 답시크 V3.1 대비 높은 점수 기록

A.X K1은 전체 파라미터가 5,190억개에 달하는 초거대 모델. 파라미터 규모와 성능이 무조건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A.X K1은 고난도 작업 수행 뿐만 아니라 경량 모델에 지식을 공급하는 Teacher Model로서 사회간접자본 역할수행 가능. 또한 해인, 울산DC, 에이닷 등 SKT가 보유한 인프라·서비스와 컨소시엄 및 제조 계열사들과의 협력관계 고려시, 활용분야의 폭넓은 보장 역시 풀스택 소버린AI로서 A.X K1의 경쟁력 강화 요인

5,190억개의 파라미터 중 활성 파라미터는 약 330억개, MoE(Mixture of Experts)구조를 기반으로 입력 데이터에 적합한 작은 전문가 모델이 상황에 맞게 활성화되어 문제를 해결하여 모델 가동의 효율성 제고. SKT 컨소시엄은 연내 멀티모달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며, 학습 언어를 5개국어로 확대하고 파라미터 규모를 조 단위로 확장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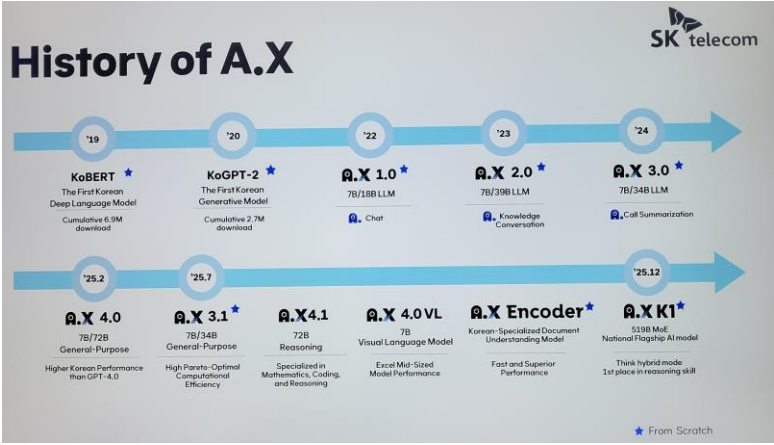
SKT가 A.X를 개발해나가는 이유는, 단순히 정부의 독자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함은 아님. 500B+의 파라미터를 가진 초거대 모델은, SK하이닉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에 Physical AI를 적용하기 위함. SK하이닉스의 공장 운영 효율성을 몇 %가 아니라 0.몇 %만 절감해도 그 효과는 엄청난데, 제조산업의 경우 보안 이슈로 글로벌 모델 보다는 Sovereign 모델이 적합.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SK그룹내 다른 분야 및 국내 다른 기업에도 적용 가능하고, Sovereign AI의 수요가 증가하면 글로벌 확산도 가능할 것

표 4. SKT A.X K1 모델

구분	주요 내용
성격	지식 증류(Knowledge Distillation)용 초거대 Teacher Model
파라미터	전체: 5,190억개, 활성: 330억개
사용 언어	한국어
구조	Mixture of Experts (MoE)
강점	고난도 수학(AIME 벤치마크) 및 코딩(LiveCodeBench) 영역
라이선스	Apache 2.0 (상업화/수정/재배포 가능)
활용 방안	B2C) 에이닷, 라이너 B2B) 에이닷 비즈, SK 제조 계열사, 크래프트온 등
향후 계획	멀티모달 순차 적용, 학습 언어 5개국어로 확대, 파라미터 규모 조단위 확장

자료: S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08. SKT의 A.X. 25.12월 A.X K1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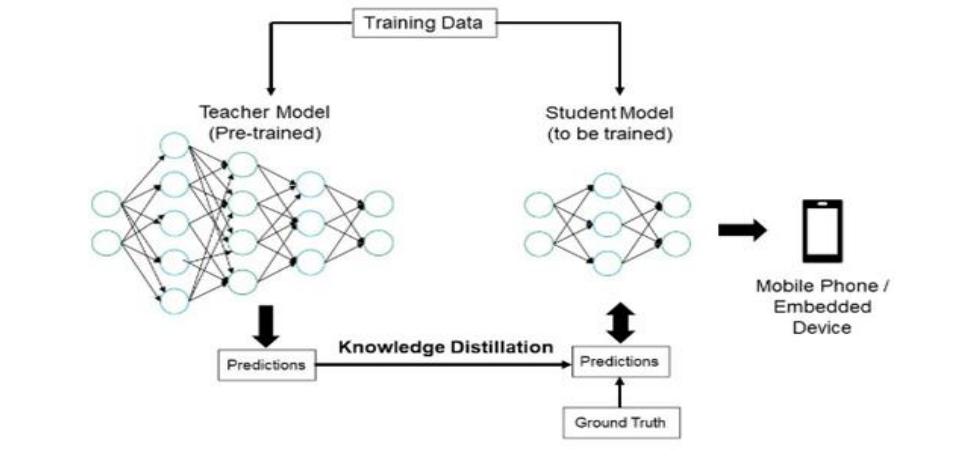
자료: MWC 2026, S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09. A.X K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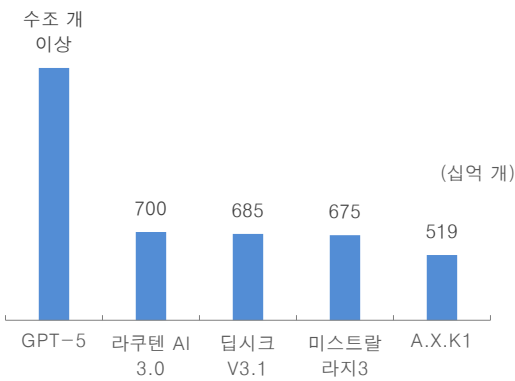
자료: S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10. Teacher ↔ Student Model 역학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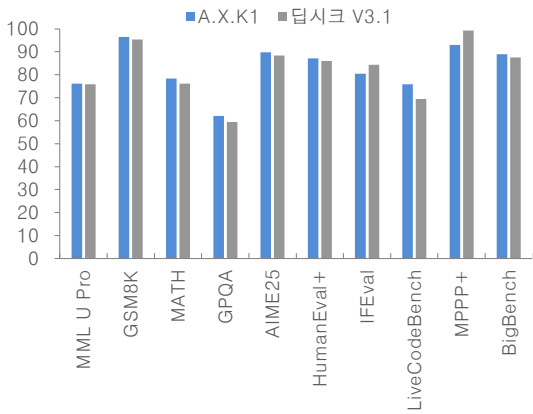
자료: 언론 보도 인용,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11. 글로벌 주요 모델 파라미터 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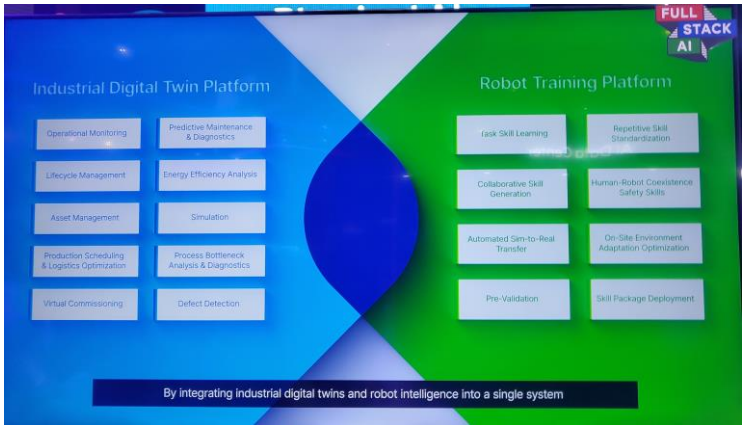
자료: 언론 보도 인용,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12. 딥시크 V3.1 대비 벤치마크 비교



자료: 언론 보도 인용,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13. Physical AI, Digital Twin 과 Robot Training



자료: MWC 2026, S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생성형 AI와
에이전트 AI인
ixi의 기반

LG EXAONE

K-EXAONE은 LG AI 연구원의 EXAONE 계열 기술에 기반하여 LG 컨소시엄이 개발 중인 MoE 아키텍처 모델. 독파모 1차 평가에서는 벤치마크,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에서 모두 1위 기록

K-EXAONE 역시 전체 파라미터가 2,560억개인 대형 모델이지만, 활성 파라미터는 약 230억개로 간소화한 구조. K-EXAONE의 주요 경쟁력은 단어 당 토큰 개수를 효율적으로 축소한 토큰나이저와 멀티 토큰 예측에 기반한 빠른 추론 속도. 또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context 길이가 약 26만토큰에 달해, 맥락 기반의 장문 처리에도 유리

한편, LG AI 연구원은 Dense 아키텍처의 대형 LLM인 EXAONE 4.0 또한 공개. EXAONE 4.0은 32B 규모의 전문가 모델과 1.2B의 온디바이스 모델로 나뉘며, 전문가 모델과 온디바이스 모델 모두 동급 대비 뛰어난 경쟁력 보유

표 5. LG AI 연구원의 K-EXAONE

구분	주요 내용
성격	초거대 AI 파운데이션 모델
파라미터	전체: 2,560억 개, 활성: 230억 개
학습량	11조 토큰
사용 언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구조	MoE
강점	256K context 기반 장문/보고서/계약서 등 문서 분석
라이선스	없음. 클로즈드 파운데이션 모델
활용 방안	솔루션/소류 형태의 산업 적용
특징	독파모 1차 평가에서 1위 기록

자료: L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14. 독파모 1차평가 컨소시엄 모델 성능 비교

	LG (K-EXAONE)	Naver (HyperCLOVA X Omni)	NC AI (VAETKI)	SKT (A.X K1)	Upstage (Solar Open)
KMMLU-Pro (한국 지식)	67.3	64.9	58.4	68.1	64.0
MMLU-Pro (영어 기반 종합 지식)	83.8	54.2	71.0	81.5	80.4
AIME 2025 (수학)	92.8	-	-	89.8	84.3
LiveCodeBench v6 (코딩)	80.7	-	-	75.8	74.2

자료: 언론보도 인용,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15. EXAONE 4.0(32B)와 딥시크-R1, Qwen3, Llama4 성능 비교



자료: L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6. EXAONE 4.0(1.2B)와 경쟁 온디바이스 모델 성능 비교

EXAONE 4.0 1.2B
세계 최고 수준의 온디바이스 모델

		EXAONE 4.0 1.2B	Qwen 3 1.7B	Qwen 3 0.6B	SmoLLM3 3B	Gemma 3 1B (Non-Reasoning Model)
World Knowledge	MMLU-Redux	71.5	73.9	55.6	74.8	40.9
	MMLU-Pro	59.3	57.7	38.3	57.8	14.7
	KMMLU-Pro	42.7	38.3	21.6	30.5	9.7
Science Math Code	GPQA-Diamond	52.0	40.1	27.9	41.7	19.2
	AIME 2025	45.2	36.8	15.1	36.7	2.1
	HMMT Feb 2025	34.0	21.8	7.0	26.0	1.5
	LiveCodeBench v6	45.3	29.9	16.4	29.1	2.3
Instruction Following	IFEval	74.7	68.2	54.5	76.7	80.2
	Multi-IF (en)	62.1	51.0	37.5	51.9	32.5
Long Context	HELMET	41.2	33.8	21.1	38.6	-
	RULER	77.4	65.9	55.1	66.3	-

자료: L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LGU+ ixi

EXAONE 기반의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ixi는 LGU+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통신서비스 및 네트워크 운영에 특화된 SLM 기반 플랫폼. ixi의 라인업은 통화앱인 ixi-O, EXAONE 기반 통신 특화 생성형 AI인 ixi-GEN, 통신 특화 보안 서비스인 ixi-Guardian 등

대표적인 서비스인 ixi-O는 구글의 LLM인 Gemini와 결합하여, AI 통화 지원 서비스 제공. 간단하고 빠른 처리는 SLM을, 복잡한 질의는 Gemini의 자연어 생성·이해와 추론 능력을 사용하며 ixi 플랫폼이 모델간 오케스트레이션 작업 수행. 이는 SLM을 활용하여 LLM 호출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온디바이스AI를 통해 보안 강화 및 초저지연 응답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

LGU+는 이번 MWC 2026에서 ixi-O Pro 공개. 사용자의 통화, 문자, 일정 등 일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먼저 제안하는 AI Call Agent. 기존 ixi-O는 고객의 요청에 반응하는 방식이었고, ixi-O Pro는 대화의 맥락과 관계를 파악해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표 6. LGU+ ixi-O

구분	주요 내용
성격	LGU+의 독자 AI 브랜드 ixi 에 기반한 통화 에이전트
기본 구조	LLM 기반, 온다바이스 SLM 혼합 구조
파트너	구글 Gemini 2.5 Flash Live
적용 방식	온다바이스AI 및 클라우드 연계
입출력 방식	실시간 음성 이해/응답
주요 기능	통화 요약/자동녹음, 보이스피싱 탐지, AI 전화 수신, 통화 중 질문에 실시간 답변
활용 방안	1) B2C 개인화 에이전트 전략 2) 통화 서비스 개선 및 통화 안전 강화 3) LLM 기반 다중 모델의 AI Orchestration

자료: LGU+, 대산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17. ixi-O 주요 기능



자료: LGU+, 대산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18. LGU+의 AI 브랜드 ixi



자료: LGU+, 대산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19. ixi-O Pro



자료: MWC 2026, LGU+, 대산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20. ixi-O P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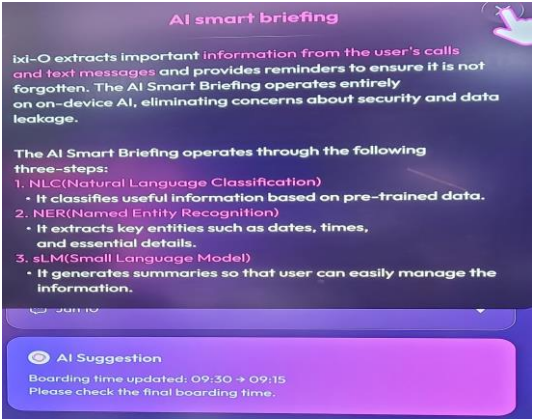
자료: MWC 2026, LGU+, 대산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21. ixi-O Pro



자료: MWC 2026, LGU+,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22. ixi-O Pro



자료: MWC 2026, LGU+,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T.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 모델

미들웨어 영역인 SPC에 집중

KT는 독자모델인 민:음K2.0 보유. 다만, 현재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 Palantir와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AX 중심의 사업 전략을 구체화 중

MS와의 파트너십으로는 25.9월 GPT-4o 기반 한국형 LLM인 SOTA-K와 25.11월 Azure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인 Secure Public Cloud(SPC) 출시

SOTA-K는 GPT-4o 모델에 KT가 보유한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시킨 구조로, 사전 테스트에서 한국어 스크립트 생성에 강점. 한국 특화 지식을 기반으로 B2B 시장 공략

SPC는 한국형 보안 특화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로, Azure 스택 기반. 다만, 운영 주체인 KT가 국내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밀 컴퓨팅, 고객 자체 키 Lock Box, 데이터 국내 고정을 통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한 구조

Palantir와는 파트너십 기반의 AX 솔루션 사업 추진. Palantir의 Foundry, AI Platform을 이용해 데이터 통합 및 AI 오케스트레이션을 지원하며, KT 내부 과제에 이를 선제 적용하여 자체적인 AX 경험 축적. 이를 통해, Palantir 기반 플랫폼에 SOTA-K, SPC 결합이 가능한 통합형 AX 솔루션 패키지를 제공하는 전략 구상도 가능해진 것으로 판단

표 7. KT-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십 기반 상품

구분	SOTA-K	Secure Public Cloud (SPC)
개요	GPT-4o 기반 한국어 · 한국 문화/도메인 특화 모델	한국형 소버린 퍼블릭 클라우드 MS Azure 기반 데이터 주권 및 보안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
협력 방식	GPT-4o 기반	Azure 기반. KT 클라우드 보안 · 규제 설계
핵심 요소	GPT-4o 기반 모델 + 고품질 한국 데이터 학습 한국 특화 벤치마크 및 Responsible AI 구현 한국어 경어 · 방언 · 전문 도메인 처리 강화	Confidential Computing Managed HSM 고객 Lockbox 및 Azure 모니터링
인프라	국내 클라우드 리전에서 물리 운영 자체 RAG/검색 조합 가능	국가 내 데이터 상주 보장 글로벌 하이퍼스케일 컴퓨팅 사용 가능
주요 서비스	질의응답, 문서 생성/요약/번역 한국어 · 전문용어 대응 비즈니스/산업용 AI 서비스 적용	컴플라이언스 기반 보안 인프라 AI · GPU 워크로드 지원 데이터 주권 · 자원 격리 구조 제공
상용화 현황	메리츠화재 · EBS · 연세의료원 · 한전 사레 검증 보고	공공 · 금융권 중심 수요 대응 전망
사업적/시장 가치	한국 기업/기관 대상 AI 적용 확대 · 산업별 에이전트 및 서비스 적용 확대	규제 · 보안 리스크 낮춘 클라우드 전략 솔루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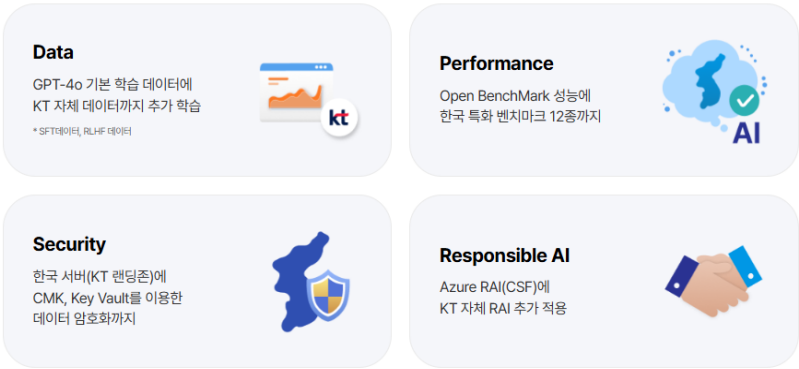
자료: 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표 8. KT-Palantir 제휴

구분	주요 내용
개요	전략적 파트너십 기반의 AX 사업 공동 추진
주요 목표	규제 · 보안 민감 산업에 Palantir 플랫폼 및 한국 맞춤형 AX 솔루션 제공
협력 방식	Palantir SW KT 사내 도입 및 실증, 제품화
핵심 요소	Palantir Foundry, AI Platform 기반의 AX 솔루션 패키지를 KT SPC를 통해 제공
주요 타겟	금융 · 공공 · 제조업 등 민감 산업
주요 전략	금융 산업 대상 독점적 영업 추진 이외 산업은 공동 마케팅/세미나 등 활용. 컨설팅/Pre-sale 강화

자료: 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23. SOTA-K의 차별화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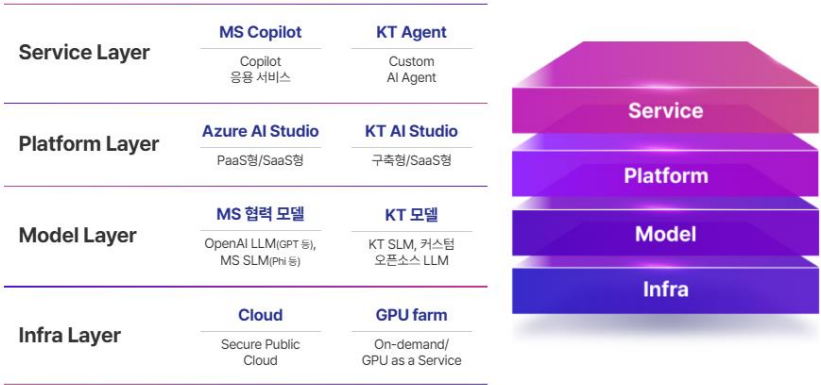
자료: 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24. KT SPC 주요 특징



자료: 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25. KT-MS 협업을 통한 AI 풀스택 레이어별 상품 제공



자료: 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26. KT-Palantir 협업 내용



자료: K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김화재)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등급관련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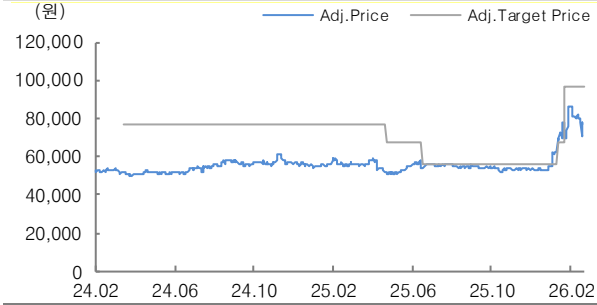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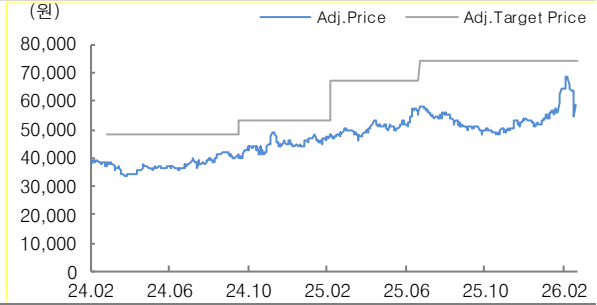
산업 투자의견	기업 투자의견
Overweight(비중확대):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 상승 예상	Buy(매수):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 이상 추가 상승 예상
Neutral(중립):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10%p 추가 변동 예상
Underweight(비중축소):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하회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 이상 추가 하락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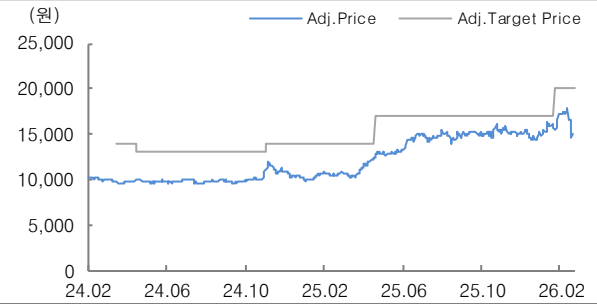
[투자의견 비율공시]

구분	Buy(매수)	Marketperform(중립)	Underperform(매도)
비율	90.0%	10.0%	0.0%

(기준일자: 20260303)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내용]

SK텔레콤(017670)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내용							KT(030200)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내용						
(원) 							(원) 						
제시일자	26.03.09	26.02.06	26.01.27	26.01.05	25.07.05	25.05.12	제시일자	26.03.09	26.01.11	25.07.11	25.02.25	24.10.08	24.03.20
투자의견	Buy	Buy	Marketperform	6개월경과	Marketperform	Buy	투자의견	Buy	6개월경과	Buy	Buy	Buy	6개월경과
목표주가	97,000	97,000	67,000	56,000	56,000	67,000	목표주가	74,000	74,000	74,000	67,000	53,000	48,000
과다율(평균%)		(18.88)	7.89	2.96	(2.67)	(19.75)	과다율(평균%)		(22.17)	(29.37)	(24.28)	(15.47)	(15.21)
과다율(최대/최소%)		(10.82)	16.27	23.93	0.89	(13.58)	과다율(최대/최소%)		(6.89)	(21.08)	(13.88)	(7.55)	(13.54)
제시일자	25.04.09	24.10.09	24.04.09				제시일자	24.03.20					
투자의견	6개월경과	6개월경과	Buy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77,000	77,000	77,000				목표주가	48,000					
과다율(평균%)	(27.67)	(26.62)	(30.78)				과다율(평균%)	(22.32)					
과다율(최대/최소%)	(23.64)	(20.13)	(24.16)				과다율(최대/최소%)	(12.40)					
제시일자							제시일자						
투자의견							투자의견						
목표주가							목표주가						
과다율(평균%)							과다율(평균%)						
과다율(최대/최소%)							과다율(최대/최소%)						
제시일자							제시일자						
투자의견							투자의견						
목표주가							목표주가						
과다율(평균%)							과다율(평균%)						
과다율(최대/최소%)							과다율(최대/최소%)						

LG유플러스(032640)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내용						
(원) 						
제시일자	26.03.09	26.02.06	25.11.08	25.05.08	24.11.23	24.11.10
투자의견	Buy	Buy	6개월경과	Buy	Buy	6개월경과
목표주가	20,000	20,000	17,000	17,000	14,000	13,000
과다율(평균%)		(15.78)	(9.99)	(15.43)	(22.95)	(20.85)
과다율(최대/최소%)		(12.50)	(4.00)	(7.59)	(11.64)	(14.69)
제시일자	24.05.10	24.04.09				
투자의견	Buy	Buy				
목표주가	13,000	14,000				
과다율(평균%)	(24.27)	(30.32)				
과다율(최대/최소%)	(21.54)	(28.00)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과다율(평균%)						
과다율(최대/최소%)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과다율(평균%)						
과다율(최대/최소%)						